

## 폭주식의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

한-베트남 정상회담 결과를 말했다. 저와 폭주식님은 오늘 한-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폭주식님의 국민 방한은 의미가 큼니다.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뤄졌으며 제가 맞이하는 첫 국민이기도 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양국은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무역과 투자 협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 국민은 친근한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협력도 더욱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와 폭주식님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협력 문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겠습니다.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입니다.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양국 국민 간 활발한 인적 교류는 한-베트남 관계 발전의 근간입니다.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조정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폭주식님께서도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주식님께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폭주식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폭주식님과 제가 오늘 협의한 다양한 협력 방안은 앞으로 양국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폭주식님의 국민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폭주식님의 방한은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전남도, 가뭄 극복 전방위 노력

### 물 절약 캠페인-해수담수화시설-수도요금 감면 등 총동원

전라남도가 49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도내 전역으로 시행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 캠페인 전개, 대체수원 확보 및 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뭄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도서 지역에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완도, 신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비비 41억 원(예비비 13억, 특별교부세 28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 금일,넙도,소안면 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급수 차량을 추가 운영해 물 공급량을 확대하고 내년 2~3월까지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노화,보길도 지역과 고금,약산,금일지역엔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및 대형 관정이 가동되면 2023년 2~3월 이후 금일,넙도,소안 1일 주민 물 수요량 대비 1~2배 정도의 물이 공급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달 18일 환경산림 민간단체회원, 여수산단협의회 등이 참여한 현장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비자단체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 '공직자 물 절약 캠페인' 등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범도민 물 절약 운동 결과 가정, 기업,사업장 등 11월 생활용수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 1일 6만3천톤(7.8%), 공업용수 사용량도 1일 5만톤(7.4%) 줄어드는 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해수담수화 등 물 부족 지역 중심으로 선제적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 어려움을 겪는 완도, 신안 등 섬 지역 광역상수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개인, 사업장, 기업 등 범도민 물 절약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의 효율적인 물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물 절약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업용수 절약을 위해 도내 모든 기업의 물 절약 동참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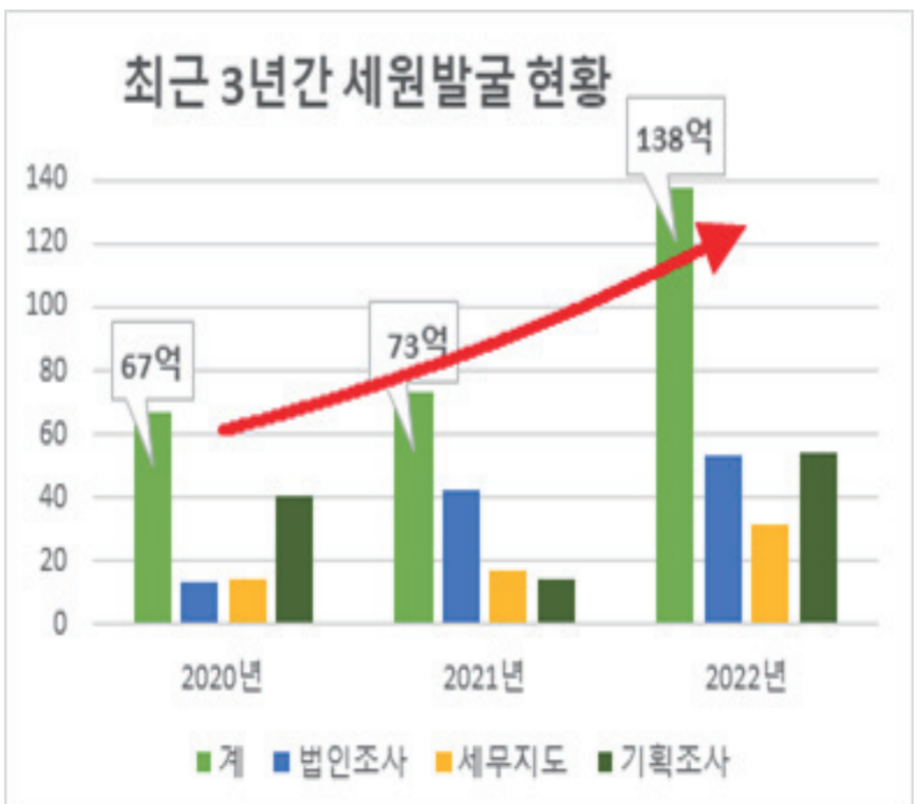


## “경북도, 올해 138억원 탈루세원 발굴”

- 전년 대비 65억 원, 88.9% 초과달성, 자주세원 확보 큰 기여  
-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 등 지방세 감면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  
·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한 결과, 올해 「탈루세원 138억 원」을 발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에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 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3억 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총 138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전년도 실적 보다 65억 원(88.9%)을 초과하는 실적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고,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53억원을 발굴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 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범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범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참고로 포함 소재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원을 발굴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제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부과·징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 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



을 덜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태풍 피해로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

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 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3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12월 21일(수) 개장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3년 만에 재개장, 오는 21일(수)에 개장식 갖고 내년 2월 12일까지 54일간 운영

서울시는 시민들의 겨울스포츠 체험명소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5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지난 '20년, '21년에는 개장되지 않았으나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스케이트장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도 도입해 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케이트장 회차별 이용료는 1천 원으로 2004년 첫 개장 이후 변함이 없으며,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케이트장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2배로 증원하고 의무요원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며, 매 회차 종료 후 정비를 통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정기적 방역을 실시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도심 한복판에서 운영되는 야의 스케이트장인 만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대기 오염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공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등으로 운영 중단 시 갑갑자 및 사전 예매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현장에서 매표소 외부 모니터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충남도의회, 천수만 대하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민들 조업해역 조정 민원 지속 발생



충남도의회는 12일 남당리 어민회관에서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수만은 태안반도 남단에서 남쪽으로 뻗은 천혜성 내만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서식에 적합해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서해안 대하의 최대 산란·성육장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천수만은 천혜의 대하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대하 포획어구인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된 해역으로, 생태계 변화에 따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대하잡이 조업 허가 및 확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하잡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좌장을, 김맹진 국립수산물연구원 서해수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주경 한국수산자원

공단 서해생명자원센터장과 조현수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 정상은 남당리 어촌계장, 조민성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맹진 해양수산연구사는 "지속적인 대하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서해 대하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하 자원의 과학적 진단과 효율적 관리 방안 수립에 필요한 연구에 어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하 어업허가 규제에 대한 정부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천수만 대하에 대한 생물·생태학적 조사 및 자원량 추정 연구 수행 ▲자자체별 한시적 어업허가 ▲대하잡이 2중 이상 자망 조업해역 확대 필요성 등 천수만 대하자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수차례 2중 이상 자망 사용 건수 확대와 한시어업 허가를 건의했지만 대하 자원 수준이 낮은 상태로, 자원회복에 대한 실행연구가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내년부터 2년간 천수만 대하 자원량 조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 계획이 수립됐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연구원과의 조업구역 확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업인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업해역 조정과 어업허가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회』, 영등포구 현장답사 및 최종보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김미경)'가 12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9월을 시작으로 수원특례시의 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료관광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과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도출하는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오전에는 의료관광 선진 우수사례지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를 견학하는 우수 선진사례지 벤처마케팅을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서울 남서부에 위치한 영등포구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여의도 한강유람선, 63스퀘어 등 한국의 대표 명소를 보유한 의료관광특구로 영등포구 소재 대형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후 쇼핑과 먹거리 등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답사 후 진행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미옥 의원은 "단계별 추진과 주요적 추진 주체가 중요하며, 추진내역에 대한 예산 비용 추계가 대략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다"며 "수원의 국내·외 자매도시를 통해 전문병원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영태 의원은 "전문병원 위주 특구를 지정할 것인지 관광 위주로 지정할 것인지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빠른 결정을 내린 뒤 사업을 검토·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수 의원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질 서비스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병원을 활성화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대표의원은 "의료특구와

관광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의료 관광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전제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최종성과품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1월 대구의료특구진 흥원과 이날 오전 영등포 특구를 견학한 의료협업체의 박춘근 원스기병원 의료원장은 "수원에는 전문병원 5개가 존재하고 종합병원이 있어 차별화는 물론 경기남부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의료특구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했다.

한편, 연구단체에는 김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권기호·김경례·김소진·김은경·박영태·박현수·오세철·윤명옥·유재광·조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활동했으며 오늘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혜영/기자

# 강원도의회, 춘천시 생태관광 활성화 세미나 열려

## 신복읍,동면,북산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 마련 계기

강원도의회 양속희 도의원(춘천) 주최로 2022년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관련 공무원 및 신복읍, 동면, 북산면 마을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생태관광 활성화 세미나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사)한국생태관광협회(회장 장병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생태관광의 이해, 생태관광의 콘텐츠

개발 전략, 생태관광의 디지털마케팅 전략, 생태관광의 글로벌 홍보 전략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제가 진행됐고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갖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양속희 도의원은 "신복읍, 동면, 북산면 지역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성을 지닌 지역으로서 그동안 개발이 덜된 것에 대한 커다란 장점을 살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회와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지역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사)한

국생태관광협회 장병권 회장은 "지역이 갖는 소중한 전통과 장소자산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생태관광과 결합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상품이 된다"면서 자연을 보존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생태관광이 새로운 관광모델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 관광을 말한다.

이등원/기자

#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



## 나 홀로 1인가구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

###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

김희수 경상북도도의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 꼴로, 이로 인해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기업유치 판도 바꿀 '기업·투자 유치 조례'전부개정

낙후된 부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을 통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는 이번 달 13일에 있을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규칙 개정 작업을 위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해 확보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업종은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첨단업종 총 10개 분야이고, 협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10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들을 빈틈없이 채웠다. 또한 개정안 설계 단계부터 부산시 집행부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본 조례의 강화된 조항들이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기업과 투자의 유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기여해야 하나, 그동안의 부산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들어 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다, 보조금의 지급 결정도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통보 형태로 이루어져, 부산광역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전략산업부터 첨단업종까지 세분화하여 한정하고, 협의회를 신설해 보조금 지급 전반에 걸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부산시에 필요하고 부산시민이 원하는 기업과 투자에 최대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업종은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첨단업종 총 10개 분야이고, 협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10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의 기업·투자 유치 활동 및 유치 완료 기업의 경영활동이 한결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대신 사후관리와 환수조항 등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이외에도 개정 조례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에 대한 특례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조항을 신설했고, 형평성을 고려해 관내 기업에 투자도 역내 이전 기업에 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조정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들을 빈틈없이 채웠다. 또한 개정안 설계 단계부터 부산시 집행부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본 조례의 강화된 조항들이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큰 성과라 하더라도 도시의 가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하며,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본 조례가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송종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성동구,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대상' 수상패거

####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 분야 '대상' 등 5개 부문 수상



서울 성동구가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와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 2개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의 평가이다.

성동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대상)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우수)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우수) ▲보육정책분야(우수) 총 5개 부문에서 고루 수상했다.

성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 복지 성동의 면모를 널리 알리게 됐다.

특히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한 고독사예방 사업 운영과 복지자원의 총량 확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등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성동구의 사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2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 구성을 통한 지도점검으로 공정성과 전

문성을 제고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대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노력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경력보유여성 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보육정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가진단키트와 보건용 마스크를 신속히 지원함은 물론, 유기농 급간식꾸러미, 반 운영비, 특별활동비 지원 등 차별화된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성동구 지역복지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 서울기술연구원 혁신원년 선포, 연구혁신 모델로 재탄생

서울기술연구원이 "명칭만 두고 다 바꾼다"는 의지로 2022년을 혁신원년으로 선포하고, 연구혁신의 폐달을 본격적으로 밟는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초연결, 초지능화된 시정구현을 위한 핵심 지원을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을 적극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혁신'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과 자발적인 혁신 의지에서 시작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4월 제2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취임 이후 '명칭만 두고 다 바꾼다'는 혁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 역할재정립 ▲ 조직재설계 ▲ 연구체질 개선이라는 3대 혁신방향을 기반으로 '6대 혁신성과'를 달성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정책'에 국한되지 않은 연구진의 원하는 연구 수행(기존)에서, '서울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체감 현안 연구와 정책연구(개선)'로의 변화하여,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솔루션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현안과 관계 없는 연간계획'에 의한 과제 연구 치중(기존)의 한계를 벗고 '서울시 이슈 모니터링 통한 현안연구과제 발굴·수행 및 정책 적기 제시(개선)'를 통해 서울시 현안관련 부서와 실시간 현안연구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부서 중심의 전공분야별 공급자

중심 연구수행(기존)'에서 '현안중심 프로젝트 그룹 및 전문가 풀을 구성 및 수요자 중심 연구수행(개선)'으로 전환했다.

'기존 수요 및 1년에 연간 사업형태의 장기연구체제(기존)'에서 '즉시연구실행체제 전환(개선)'했다. 특히 현안연구팀을 신설하여 서울시 현안 연구실행 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구체질을 완전히 개선했다.

연구착수 전 5단계 절차를 총 2단계로 줄여 착수까지 6개월이 걸리던 시간을 4주 이내로 단축했으며, 연구보고서를 20쪽 내외의 실용적 보고서로 전환했다.

유사 연구분야를 묶어 대과(大科)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연구성과를 지향하는 슬림조직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다수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해결 및 인적자원 역량을 결집하는 효과를 얻었다.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지난 여름 폭우와 관련하여 수해 예방 긴급포럼을 개최하여 산학연 공론의 장을 직접 마련한 것은 물론 ▲ 수해최소화 8중 세트 ▲ 빅데이터 기반 고도사 분석 연구 ▲ 디지털 성범죄 AI 추적 기술 등이 있으며 사회적 이슈 및 도시 현안에 신속 대응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 혁신원년 선포식'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 생중계된다.

측사로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

장, 남창진 서울시 부의장,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숙자 기경위 위원장, 송도호 도안위 위원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혁신원년 홍보영상 상영'과 6대 혁신키워드를 활용한 '혁신원년 선포 세리모니'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좌담1] 연구혁신의 오늘과 내일, [좌담2] 함께 가는 혁신이 이어진다. 토론패널로 최병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진두 YTN 부국장, 신창호 지역경제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혁신원년 선포를 기점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솔루션 연구' 수행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의 '솔루션 리더'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지난달 10일, 서울기술연구원은 '2022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연구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혁신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혁신의 선도 모델이 되어 서울시 산하기관 연구조직과 국책연구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연구원 스스로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혁신 조직이 되어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과학기술 솔루션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그라시아스 마포' 마포구 보건의료체계에 반한 콜롬비아

### 보건의료분야 개혁 앞둔 콜롬비아 보건부, 마포구 보건소 벤치마킹 다녀가

지구 반대편 세계 3위의 커피생산국인 콜롬비아가 마포구의 선진화된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디지털 인프라 운영과정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 12월 8일 마포구를 찾았다.

이번 콜롬비아 보건부의 한국 방문은 '2023년 콜롬비아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위해서다.

이들의 방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공중 보건 위기관리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마포구의 보건 의료체계와 의료정보 전달체계 등 선진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노하우를 배우길 희망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콜롬비아 보건부 국장급 등 직원들은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면담을 갖고 마포구 보건소로 이동해 모자보건센터, 마포건강관리센

터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간 정보처리 체계와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그동안 축적한 공공보건 노하우를 함께 공유했다.

콜롬비아 보건부 보건기술평가실장 GARCIA씨는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앞두고 선진화된 공공의료에 대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준 박강수 구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만남이 콜롬비아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양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금천구,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 개최

### 마을공동체 부문별 시상, 주민 축하공연, 포토존 등 프로그램 진행

금천구는 12월 15일(목) 오후 7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제5회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을 개최한다.

'뽐'은 '마을이 마을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시상식이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 등 현대사회 재난을 경험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써온 주민들을 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 새로운 공동체 △ 공동체 성장 △ 마을공동체 공간 △ 마을스타 △ 대상 및 최우수상까지 총 6개 부문별 시상과 민요, 합창 등 다양한 주민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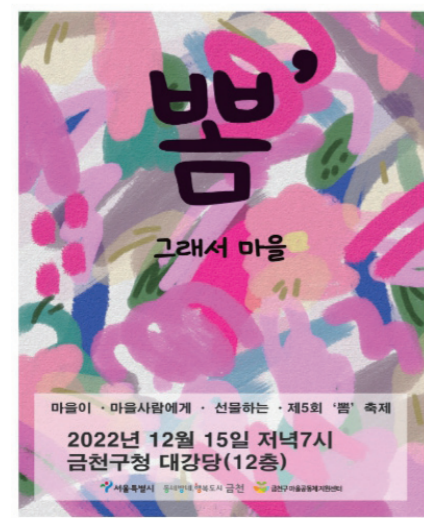
이외에도 플라로이드 포토존, 행운권 추첨 등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금천구 마을공동체는 코로나19로 마을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 마을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공익화

등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활동가들이 힘을 얻고 마을공동체 연결고리가 더욱 확장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마을공동체가 성장하고, 주민이 만드는 골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서초구, 중·장년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2022년'4060 토크 취업특강'열어

서울 서초구는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일간 서초구청 2층 대강당, 서울 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재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2022년 '4060 토크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최근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희망 노동 연령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4차산업분야의 가속화 및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중장년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중장년 재취업특강을 비롯해 관내 기업과 구직자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일구데이'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플러스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장년 재취업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줌(Zoom) 프로그램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수강생의 태도나 반응 확인이 어려웠

다. 올해는 재취업 특강과 맞춤형 교육 대면형식으로 진행해 중·장년층 등 구직자에게 변화하는 취업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대상별 맞춤형 취업준비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날인 12월 월요일 15시30분부터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취업 컨설팅 전문 '전재경 강사'의 '통하는 4060 취업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은 '생애설계 노하우', '효과적인 구직정보 탐색', '중장년 입사 지원서 및 면접의 성공 전략', '4060 재취업 성공 사례 분석' 등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날인 13일 화요일 10시부터 여성 재취업·주부, 14일부터는 고령자·퇴직예정자 대상으로 '채용 정보 탐색과 활용법 및 면접 노하우'를 주제로 서울 창업카페 서초교대점(교대역 내 위치)소규모 컨설팅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4일 수요일 역시 서

초 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 9시 30분부터 여성 재취업·주부, 14시부터 고령자·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2022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규모 그룹 맞춤형 취업컨설팅에서는 주부, 퇴직직자들에게 자기만의 입사지원서 100% 완성을 목표로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로 첨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소규모 그룹 교육 신청자인 문모(43세)씨는 "경력단절 후에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재취업 준비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교육에서 취업정보 습득방법부터 자기소개 작성 1:1 컨설팅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중장년의 경력직 취업방식도 채용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적합한 구직방법을 배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서초구에서는 인생2막 기회 제공을 위해 중·장년 맞춤형 교육과 좋은 일자리 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경기도, 14일 '제1회 경기도 인권주간 기념행사' 열어

### 경기도, 인권주간 맞아 12월 14일 '2022 인권기념 문화행사' 올해 처음으로 개최

경기도가 세계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는 인권주간을 맞아 14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에서 인권활동가 150여 명을 초청해 제1회 2022년 경기도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연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첫 인권의 날 기념행사다.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에 인권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선 8기 도정 목표의 의미를 담아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인권경기 구현'을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인권을 새기다 ▲기리다 ▲배우다 ▲즐거다 ▲알리다 ▲기약하다로 구성해 진행한다.

'인권을 새기다' 세션에서는 제1회 경기도 인권작품 공모전 슬로건 부문 최우수 작품 '누구나 존중받는 경기도, 사람이 우선되는 경기도'를 한국 전통 서예가이자 전각사 국당 조



성주의 대부 서예 퍼포먼스로 선보여 인권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인권을 기리다' 세션에서는 시상식과 개최식, 기념촬영 등이 진

특히 강연이나 토론회 위주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도민들이 직접 인권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인권을 알리다&즐거다' 세션을 마련해 행사장 밖 로비에 별도의 부대행사를 조성한다.

지난달 경기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인권 캐릭터 부문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존중이와 평등이'를 중심으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인권 캐릭터 포토존 ▲인권 소망 메시지 트리존 ▲인권시책 안내 및 상담 홍보 부스 등이 마련되며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인권기념품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도민의 인권관심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를 거듭해 갈수록 경기도 인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보하는 장의 뜻깊은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 2022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지난 12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22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시상식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중앙회는 귀농 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지역 농업의 존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 인구 유입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을 기리고자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포함 8개 자치단체장(강원도 평창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진안군,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 경남 진주시)이 수여 받았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자체 특색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협약 사업을 통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 유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농촌의 활력화와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시장·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축사를 건넸다.

아울러 김보라 시장은 "농민과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할 것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회장 이택수 의원은)는 1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에서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주차공간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노후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교수는 "주차공간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주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도내 주차장 공급정책 및 기존 주차공간 활



용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저층의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노후주거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나 공간적 제약, 재원 부족 문제로 주차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

며 "이번 연구를 통해 노후주거지역 내 존재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연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택수(국민의힘, 고양8)의원을 비롯해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의원,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의원,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의원, 이서영(국민의힘, 비례)의원과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2월부터 3개월간 수행되며 내년 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교육청, '책읽는학교'를 통해 창의융합교육 기반 닦다

### 25개 지역별 '책읽는학교' 중심교 운영으로 학생독서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책읽는학교' 운영으로 창의융합형 독서·인문·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스마트폰(23.7%)과 교과공부(21.2%)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책읽는학교' 정책으로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학교도서관에 구비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독서시간, 독서공간, 독서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학생독서역량 신장에 힘써왔다.

'책읽는학교' 정책은 지난해 6개 시범 운영교로 시작해서 올해는 25개 지역별 중심교 운영에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가 참여했다. 내년에는 지역별 중심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책읽는학교' 중심교는 독서교육을 통해 기초·기본학력의 토대를 만

들고 난독증, 기초문제력 부족 해결은 물론, 창의융합인재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스스로 계획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 운영 내용은 ▲교과 융합 독서, ▲진로 연계 독서, ▲자유학기 연계 독서, ▲독서습관·가족독서 프로그램, ▲경기학생BOOK치기, ▲상담독서 프로그램, ▲독서 문해력 증진, ▲교육공동체 독서 동아리 등이다.

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김용우 과장은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책읽는학교'를 운영중"이라며 "앞으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창의융합교육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참여교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 확보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해 민생의 대상을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로 획일적인 정부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부형태의 운영에 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형태에 따른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동기 차이가 정부별 행위, 정책 선호, 성과 차이 등을 이끄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

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노력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정부입법 추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 검토 ▲경기도와 시·군은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기관구성 다양화를 시범실시하여 관련한 이슈 및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학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규모

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관구성 다양화 이슈를 담당할 전문기구와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이므로 점진적 도입과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실시를 통해 정부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 “찍어볼까 평택?”,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평택시는 지난 9일, 시민과 함께 선정한 '평택 8경'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찍어볼까 평택?'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평택 8경'을 주제로 한 관광사진 공모전에 응모한 총 323점의 작품 중 최종 28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서해대교 일몰'을 촬영한 조기창(충남 아산시)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입선 20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는 당선작을 더 많은 시민과 공

유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평택시청 본관 로비에 전시하고, 평택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문화예술을 알리는 관광 홍보자료 등 평택시 공식 SNS와 다양한 홍보 매체에서 당선작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8경에 관심을 갖고 관광사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수상자와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향후 선정된 사진들을 평택 관광 홍보자료 제작 등에 활용해 평택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인천TP, 농촌융복합산업 알리기 눈길 끌어

#### 6차산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푸드 스타일링·VMD 등 3개 과정

인천지역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TP는 농림수산업(1차산업), 제조·가공업(2차산업), 유통·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TP는 이를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음식에 멋을 입혀주는 푸드 스타일링, 음식 콘셉트에 맞춰 제품을 꾸며 전시하는 시각적 상품기획자(VMD) 교육 등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6차산업 인증 기업의 제품들을 활용하는 이 교육은 '미각학교', '푸드 스타일링', '푸드 VMD' 3개 과정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아부 미각학교에 참여한 오렌지어린이집 유나은 원장은 "원생들이 지역 특산물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재료를 이해할 수 있

는 자리였다"며 "건강한 식습관과 식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푸드 VMD 교육 수료생 안수빈 씨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6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알찬 체험교육이었다"며 "지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등부와 일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호응도 조사에서 대다수(97.2%)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으며, 다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82.9%)도 높았다.

인천TP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열기가 높았다"며 "인천 6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남/기자

### 제17회 시흥갯골축제 자체 평가 결과 보고회 성료

시흥시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7회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평가와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평가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올해 시흥갯골축제의 결과보고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평가와 방문객 분석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의 주요 성과와 방문객 만족도, 운영, 발전 가능성, 개별 프로그램의 잘된 점과 개선사항 등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서 축제정체성을 확립한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공유를 비롯해 축제장

교통 및 편의시설 개선, 안전관리 등 올해 축제의 아쉬운 점들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축제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내년 시흥갯골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축제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흥갯골축제는 6년 연속 화관광축제 선정 및 8년 연속 경기관광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시흥갯골축제는 시흥시민과 관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신우용/기자



## '2022 수원특례시 사회복지경진대회' 개최

### 유공자 표창, 도전! 복지 골든벨 등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및 연대 도모



수원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화합하며 연대를 도모하는 '2022 수원특례시 사회복지경진대회'가 1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원시사회복지사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사회복지경진대회는 수원지역 사회복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경진대회는 사회복지 유공자 22명 표창과 수원시책을 홍보하는 '도전! 수원특례시 복지골든벨' 등이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으로는 김정희 가톨릭 여성요양, 정성순 중앙요양원, 양종현 수원시립노인 전문요양원, 양은해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등 4명 수원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원시의회 의장상 3명, 수원시 사회복지사업협회장상 3명, 수

원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3명, 경기도 사회복지사업협회장상 2명,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2명, 선의상·공두리 상 등 새내기 사회복지사 5명을 표창을 받았다.

이어진 '도전! 수원특례시 복지골든벨'에서는 참석자들이 골든벨 문제를 풀며 수상자를 가리고, 패자부활전과 행운권 추첨 등 즐거운 이벤트로 유대를 다졌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따뜻한 수월시가 되도록 힘써 주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수월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처우개선 제도를 시행해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2022 평택시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평택시새마을회는 9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평택시 주요 5개 단체장, 24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평택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022년 평택시 24개 읍면동 새마을의 활동성과 돌아보고, 2023년 평택시새마을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 성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축사, 포상, 선언문 낭독, 새마을노래 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이천시 평택시새마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겨워할 때마다 더욱 빛났다"며, "새

마을운동의 실천 역량을 한데 모아,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국민운동이라 생각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에 김광덕 새마을지도자 신장 2동협의회장 △행정안전부장관상에 나원순 원평동새마을부녀회장이 수상한데 이어 유공 새마을지도자 40명이 수상을 했다.

또한, 회원단체별 읍면동 평가 최우수 읍면동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신장2동협의회와 원평동새마을부녀회가 영예를 차지했다.

양시현/기자



### 양평군,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플레이스' 메가쇼 참가



양평군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메가쇼'에 참가해 물맑은 양평 쌀과 가공제품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 양평군은 양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해 주식용 쌀과 10개 업체의 쌀 가공제품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 방문 유도를 위해 시간대별 제품 시식 및 현장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동시에 진행해 온, 오프라인 소비자들에게 양평 쌀을 적극 홍보 및 판매했다.

박람회 참여 한 농가는 "양평 쌀로 만든 '동지 팥죽'은 판매를 시작

한 지 2시간 만에 준비된 물량 100개가 완판돼 물량을 추가로 준비해 행사를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라며, "처음 선보이는 제품들이라 걱정했는데 현장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 뿌듯했다"고 말했다.

주성해 농업경영과장은 "이번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인 '메가쇼' 참가를 통해 양평 쌀과 쌀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수도권 잠재고객들에게 알리고 농식품의 소비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지역 농산품과 가공제품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울/기자

### 강화군, 조업한계선(어장확장) 조정에 발 벗고 나

강화군이 접경지역 어업활성화 및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조업한계선을 조정에 나섰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새우, 장어, 송어, 반지,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특히, 오염없는 강화갯벌은 어족자원의 휴식과 번식을 위한 서식지로 생물의 종이 다양하다.

하지만,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군은 조업한계선(어장확장)을 현실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조업한계선의 복복에 있는 어항인 하점면 창후항, 교동면 남산포항 및 죽산포항, 삼산면 서검항, 서도면 불

음항은 입·출항 시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 밖에 없다.

군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군부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해수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또한, 월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자동출항단말기(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기(VHF-DSC) 등 안전장비를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어업지도선을 순회 배치해 어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향후에는 군부대,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장확장 시 안전사고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계획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창후, 교동, 서검, 분지골어장 7km ▲교동어장 18km ▲서검어장 14km ▲분지골 40km 등 4개 어장, 79km규모이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한강 하구의 황금 어장 확장으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서해바다와 한강이 만나는 강화바다는 생태계의 보고이지만 어로활동에 제약이 많아 어촌이 침체되어 왔다"며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인 어장 확장을 반드시 이뤄 접경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우수기업 6사에“지역경제 살림꾼 감사”

## 용인특례시, 인증서와 현판 전달...“기업 경영하기 더 좋은 용인 만들 것”

용인특례시는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올해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서 온 6개 중소기업에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과 직원복지, 근로환경, 국내외 기술 인증 여부, 표창 여부, 기부와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기준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용인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용인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빅드림, (주)에이치에스씨, 중앙자동차시스템, (주)엔엠텍, (주)케이피텍, 코코도르(주) 등 6곳이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특별보증 및 이차보전 우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 용인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기업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기업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용인시는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안산시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2022년 활동공유회 성황리 마무리

## 별별청년-안산청년대학 등 청년정책 추진...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 선정

안산시는 지난 10일 청년공간 경기 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센터장 문지원)가 '2022년 활동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활동 공유회는 청년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올해 청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공간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는 ▲청년 수요를 반영한 취미·여가·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안산청년대학 ○○학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상담소' ▲청년 생활경제 교육 '금융포럼 탈출 프로젝트' ▲진로 탐색과 취업준비를 위한 전문강좌 '진로지원프로젝트'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별별청년' 및 '안산청년대학' 등 청년 주제성에 가치를 두고 지역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경기도 우수청년공간 선정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돼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청년공간 상상대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지원 센터장은 "많은 청년들께서 함께 해준 덕분에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은 "상상대로에서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고양특례시, 한파 잇은 뜨거운 민생 행보 '3안 행정' 주목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회의를 넘어 현장의 변화 주문" 제설기지 현장방문

"겨울철 제설, 한파, 감염병 3대 분야만큼 확실하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2일 컨택스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3안 민생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서 겨울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안(安)은 '안전, 안심, 안정'의 약자로, 이동환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시민의 삶은 안전하고, 노후는 안심되며, 경제는 안정될 것"이라는 뜻의 '3안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달 처음 개최된 '3안 회의'는 이 약속을 실천해 옮기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매달 시의 주요 민생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꼽은 분야는 제설이다. 시는 전례 없이 신

속한 '선제적 제설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예고 없는 폭설에 대비해 590여대의 제설장비가 24시간 출동을 준비하고, 주요도로에 제설 우선순위를 두어 큰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제설을 시작해 시민 불편을 최대한 예방한다. 또, 이면도로, 보도 등 취약 구간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44개동 제설 봉사단과 협력해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사고를 방지한다. 기상 이변에 따른 한파로 생활이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황 대응과 응급복구에도 적극 나선다. 24시간 한파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초기부터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3개 구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응급복구에 나설 예정

이다. 저소득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정 난방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고려, 한파철터를 10% 확대(160개소) 운영하고, 온풍기·담요·이불 등 5종 난방용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단전·단수 등 39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각지대 가정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후원을 연계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계절병이 함께 유행하는 '더블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수급자·장애인·어르신 등 11만여 명에 달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독거노인 등 5,500명의 집중관리대상은 전담 인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밀착 관리한다.

특히, 맞춤형 홍보를 통해 어린이(72%), 어르신(80%) 독감 예방 접종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위생 문제에 대비, 영세 음식점에 방역 물품을 신규 지원하고, 안심업소 지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 입장에서 어려움을 찾고 고민하는 것이 민생대책의 시작"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민생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회의 후 일산서구의 제설 기지를 방문해 제설 장비와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주기적인 민생방문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청년소통공간'상상대로', 2022년 활동공유회 성황리 마무리

# 백년의 밤이 공존하는 도시, 인천... 빛의 도시로 도약

## 9일,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 개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2월 9일 송도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에서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로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관광업계 및 상권, 여행사 등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으로서의 도약을 염원했다. 더불어 인천시와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3자간 업무협약,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발표, 야간경관 명소 소개, 스토리텔링 공연 등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9월 시는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에 인천의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제1호 빛의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시는 '인천백야(仁川百夜)' - 인천 100년의 밤(仁川百夜)'을 테마로, 19세기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던 '개항도시 인천'에서 100년 후 엔데믹 시대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앞으로 시는 송도와 개항장을 거점으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 및 야간경관 명소를 개발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빛의 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시비 총 56억원을 투입해 '올 나이트 인천(all nights INCHEON)'을 슬로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2030년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잠들지 않는 도시, 해가 지면 새로운 관광이 펼쳐지는 도시로 변모시켜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야간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명소, 야간관광 여건, 유사사업 연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야간관광 콘텐츠는 특화 프로그램(야간공연, 야시장, 야간체험 등), 낭만가득 선셋투어(노을야경버스, 수상레저보트) 등의 상설 콘텐츠와 시 그니처 빛축제, 미디어 아트페어 등 비상설 콘텐츠로 구성된다. ▲야간경관명소는 야경 랜드마크와 조망명소 등 10대 야경 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야간관광 여건개선을 위해 상권 활성화,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이동편의 개선, 야간관광 마케팅

에 주력하고, ▲스마트관광도시, 문화재 야행-음악축제 등과의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12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함께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인천 야경명소 BEST 10 투표 이벤트'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기념하는 '축하·소문내기 이벤트' 2가지로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인천의 야경이 아름다운 호텔 숙박권 및 상

품권, 음료 교환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경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통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천시가 우리나라 야간관광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광명시, 1.5°C 기후의병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명시는 9일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 극복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며, "광명시 기후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시민과 소통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분야 시상으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목표와 적절성, 지역 부합성과 전략성, 단체장의 추진 의지, 파급성, 혁신성 등을 심사했으며, 광명시는 '광명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언, 광명시 1.5°C 기후의병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

립 생활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방정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명시 1.5°C 기후의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광명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작년 대통령상 수상 이후 올해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푸른 하늘의 날 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늘푸른 환경대상, 대한민국 자치대상, 경인히트상품,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 이어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까지 8번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시는 2023년에는 지방정부 처음으로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제도를 마련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활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광명시 1.5°C 기후의병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남해 관광기업 디자인 패키지사업, 온라인 경쟁력 효과 커

온라인 판매 종합 컨설팅부터 상품 디자인까지 개발해 만족도 높여

**문항마을**

문항어촌체험마을 오시는 길

문항어촌체험마을

055-863-4787

http://www.문항어촌체험마을.kr

@munhyang\_village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 관광사업체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남해관광사업체 디자인 패키지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관광분야에서도 온라인 상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관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일선 관광사업체에서 온라인 상품화에 가장 필요한 디자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디자인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전반적인 온라인 노출과 판매전략 컨설팅 및 디자인(웹페이지, BI, 포장 패키지, 상품 사진 등) 개발을 지원해 총 37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남해 보물섬전망대 류지철 대표는 "관광문화재단에서 디자인 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 지원했다. 실제 상품 사진 촬영부터 시작해 제품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내는 로고 제작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관광 사업을 잘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서 이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맙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관광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져왔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남해관광의 온라인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준/기자

### 이강덕 시장, 박태준 회장 11주기 추모 "청암 정신 이어 포항 미래 열 것"



포항시는 13일 청암 박태준 포스코 회장 서거 11주기를 맞아 포스텍 청암조각공원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포스텍 내에 있는 박태준 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공생 공존하며, '절대적 절망은 없다'와 '우향우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철강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낸 박태준 회장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전에 보여준 체질보국, 애국애족의 정신과 함께 도전과 창의의 '청암 정신'을 바탕으로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내고, 포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박 회장의 업적을 되새겼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재의 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영일만 기적을 이뤄낸 박태준 회장의 불굴의 신념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포항시민들의 자긍심으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태준 회장의 정신과 헌신을 깊이 되새기고 함께 미래의 포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 경북도,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총 210억원 투입

- 국제곡물·사료값 인상에 대응 중장기 조사료 증산대책 추진
- 사일리지제조비 등 기존 계속사업 외 생산장려금 등 4개사업 신설

경상북도는 국제 사료원료 곡물과 국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 활성화로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 약 35~57%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비와 소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한우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613원으로 2020년 412원 대비 약 49% 인상된 것과 달리 한우고기 경락가격은 2020년 1만9878원, 2021년 2만1179원에서 지난달 1만7679원으로 약 16.5%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한우농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올해보다 66억원 증액한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해 사일리지 제조비와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가기술보급,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 농업 대전환 과제 중 하나인 조사료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료작물용 종자구입비, 옥수수 전용 생산장비, 농



가 자가사료 제조·급이 지원 등 4개 신규사업비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능가 참여 확대와 지역 내 사료자급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26년부터 소고기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를 시작으로 연이어 관세가 철폐된다. 경북은 전국 최대의 한우 생산지임에도 조사료 생산 여건이 열

악해 이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신규제비지 발굴과 볏짚·야초 등 부존자원의 사료이용 확대 지원, 정부의 전략작물직물제사업에 포함된 조사료 생산을 적극 장려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사료비 경감을 위한 정부특별사료구매자금 1.5조원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93억원을 확보해 축산농가에 초저리(금리 1.0%)로 지원했으며, 자체사업으로 43억을 투자해 보조사료, 단미사료 등 사료첨가제 14만포를 공급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썰 성금 전달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월), 크리스마스 썰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고등학교 2, 3학년대상으로 학생들의 결핵 초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생 1인당 검사비를 편성해 고등학생 결핵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썰 모금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결핵에 대한 위험성과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취약계층 결핵 방

견 및 지원 등 결핵퇴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도 매년 대한결핵협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 중 가장 오래된 질병으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손씻기 등 학생 예방 교육을 실시해 결핵 퇴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크리스마스 썰 성금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소방,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우수관서 시상

#### 최우수 문경소방서, 우수 영덕·영천소방서, 장려 구미·경산소방서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상위 5개 관서에 대하여 우수관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은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기간 중 22일) 도내 21개 소방관서 및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

최우수관서는 문경소방서, 우수는 영덕·영천소방서, 장려는 구미·경산소방서가 선정됐다.

소방장비관리상태 확인점검은 매년 도내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호흡보호장비, 구조·구급장비에 대하여 운용자의 조작능력과 장비관리 상태를 점검해 완벽한 소방장비 유지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모든 소방관서에서 체계적인 소방장비관리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완벽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북을 위해서 우리 경북소방은 더욱 더 철저히 현장대응력을 확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소방장비관리센터에서는 소방차량 정비 및 차량별 운용자 교육을 통해 소방장비 고장으로 인한 출동공백 방지와 현장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호흡 보호 장비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올타리 USA, 영양군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훈훈한 화제 돼,

# 봉화군, 국가 재정현황 및 국비 확보 역량강화 교육

## - 미국 한인사회에서 빛깔찬 고춧가루 시장 호황소식과 함께 장학금 기탁해

올타리 USA는 지난 12일,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7백만 원을 전달했다.

신상권 대표는 "미국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행사매장과 현지 고객들에게 세계적인 품질의 빛깔찬 고춧가루 판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좋은 소식을 알린다"며 "연말을 맞아 뜻깊고 보람된 일에 사용하고자 직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타리USA사는 2018년에 설립되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주 최대 온라인 K-Food 쇼핑몰로 LA매장을 비롯해 12개의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빛깔찬 고춧가루의 미국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영양군의 빛깔찬 고춧가루는 미국 아마존몰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한국 고춧가루제품으로 대한민국 우수농산물의 위상을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미주 전역으로 1Day Delivery Service(일명: lightning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왼쪽) 대표 신상권(가운데)과 올타리USA 대표 신상권(오른쪽)이 장학금 기탁을 기념하여 기념품을 나누고 있다. (가운데) 신상권 대표가 장학금 기탁을 기념하여 기념품을 나누고 있다. (가운데) 신상권 대표가 장학금 기탁을 기념하여 기념품을 나누고 있다.

express) 하루배송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쇼핑몰로 자리 잡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기탁을 위해 소중한

윤근수/기자

## 안도걸 · 기획재정부

### 2차관 초청, 군 직원 250여

### 명 대상

봉화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초청해 군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 재정현황 및 국비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 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안 전 차관은 재정제도의 기본 틀, 국가 재정 및 정부예산편성 현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과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 및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직면한 미래 재정위험 파악과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재정혁신 5대 정책과제와 군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전 차관은 "민선 8기가 안

정적으로 출범한 만큼 박현국 군수와 직원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방안 집중해 협력한다면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봉화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흐름과 재정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직원 역량 강화와 봉화군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과 시책수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 전 차관은 전남 화순군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행정·복지·경제·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올해 5월까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다.

정금자/기자

# 2022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개최

## - 전통탈춤 진흥법 제정 및 탈춤도시연대 공감대 형성 -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념

세계 유일의 탈 관련 유네스코 NGO 자문기구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은 12월 15일

부터 12월 16일까지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및 세계탈문화컨퍼런스를 안동국제컨벤션

센터에서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천의 얼굴, 인류(人類)를 위한 몸짓'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안동총회는 약 15개국 1,000

여명의 탈 관련 국내외 학자를 비롯해 문화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탈 공연자, 일반참가자 등이 참가해 전통탈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보전 및 활용 방안 등 다각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달 30일, 제17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념으로 열리는 총회로서 세계탈문화컨퍼런스를 함께 진행 하면서 세계 보편 문화인 탈의 중요성과 '세계 탈 문화의 메가, 안동'의 브랜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개회식 이후 열리는 세계탈문화컨퍼런스에서는 전통탈춤 진흥법 제정과 탈춤도시 연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등재 탈춤 소재지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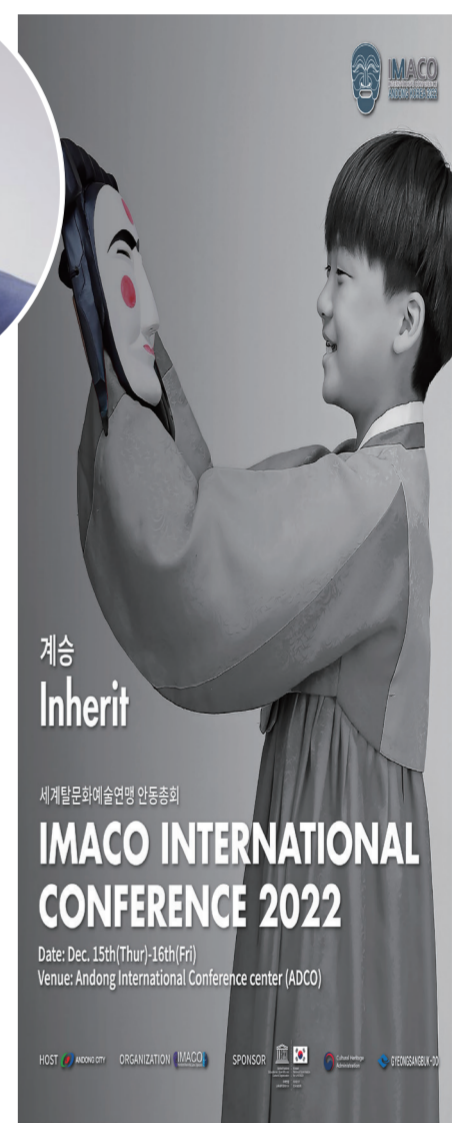
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국탈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마코 10여 개 회원국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킹회의를 비롯해 탈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한국탈춤의 세계와 미래로의 확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 도시경쟁력으로서의 문화 등 5개의 분과세션이 개회식 이후 진행된다.

정홍식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는 2006년 창립총회 이후 16년 만에 안동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그동안 탈 문화의 전승과 보전, 창의와 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온 연맹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면서 "특히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열리는 만큼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자 간 연대 및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경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대상 수상

의성군은 9일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2022년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업무 추진성과를 총결산하며 평가했으며, 새마을 업무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및 우수(특수)시책에 대해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의성군은 지난해 우수상, 올해에는 대상을 받아 3년 연속 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읍면동 평가부문에서 지난해 의성군 단복면에 이어 의성군 춘산면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성군은 목화밭 조성 및 활용사업, 새마을꽃동산 만들기 등 특수시책과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 하천변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 코로나-19 방역, 자원재활용 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등 새마을사업 추진 전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읍면동 평가부문에서는 의성군 춘산면에서 지구촌 빈민국 어린이



의성군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대상 수상 기념식에서 의성군 대표단이 상패를 받는다. (가운데) 의성군 대표단이 상패를 받는다. (가운데) 의성군 대표단이 상패를 받는다.

들기 성금모금을 위한 재활용품 제작·판매 행사를 추진하여 리사이클 제품 제작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라오기 기부를 통한 지구촌 동행 실천 등 춘산면만의 차별화된 새마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금자/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이 좋다. 영양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이 좋다.

**물** 영양은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한다. 영양은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한다.

**빛** 영양은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이 좋다. 영양은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이 좋다.

**맛** 영양은 맛있는 음식을 자랑한다. 영양은 맛있는 음식을 자랑한다.

**심** 영양은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이 좋다. 영양은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영양이 좋다.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시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방아들보호공원, 반달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계수석야생화전시관



### 「2022년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수료식 개최



통영시는 지난 10.(토) 미수동 주민센터 동민홀에서 통영시자전거연맹 임원진, 교육 강사, 수강생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2022년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에서는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1~4기) 66명, 새벽반(1기~3기) 33명, 주말반(1기~9기) 119명 3개반 총 218명을 교육하였으며 5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5월에는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법규, 통행원칙을 포함한 이론에서 자전거 기본자세, 주행방법, 실전 라이딩 실의수업까지 폭넓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자전거 교육장 수료생들은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며, 수료 후에도 통영시의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안익규 교육체육지원과장은 “열정과 끈기로 교육을 수료하신 교육생 모두 축하드립니다. 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이 실생활에 잘 적용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 자전거 교육장은 올해 교육을 마치고, 내년 3월 다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통영시 교육체육지원과(☎650-4713)에 문의하면 된다.

이유준/기자

### 경주시,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쾌거

#### 민원실 내부 쉼터, 스마트 가든,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창구 등 신설



경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을 받아 민원 서비스의 우수함을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교육청, 국제청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앞장선 우수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증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신규 인증을 받는데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재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이 3년 연장돼 2025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평가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시는 그간 민원실 내부에 도란도란 쉼터, 스마트 가든,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창구, 외국인 전용 창구를 조성하는 등 민원실 환경 개선한 점을 인정 받았다.

또 민원 안내도우미 및 청원경찰 배치, 화요일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등 민원 서비스 분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 재인증의 배경이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행안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시 직원들의 결과물이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민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영덕 지체장애인협회, 여성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 성료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는 여성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장애인회관 3층에서 ‘2022년 여성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영덕군의회 김성철 부의장, 영덕군 업체회 가족지원과장,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오대희 협회장, 경북 내 각 지회 회장단과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등으로 짙어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고통을 무색케 하는 여성 활동가의 아랑고고장구 공연과 시 낭송이 식전 행사로 펼쳐져 관객의 감동을 받았다.

이어 1부 기념행사엔 여성 활동가 박팔봉 단장 등 10명이 장애인복지유공자로 표창을 받았으며, 2부 행사엔 노년의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김대환 회장의 강연과 함께 한해 활동 기록을 담은 포토북 증정, 사랑의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진행됐다.

영덕군 업체회 가족지원과장은 “올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여성 활동가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몽글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여성장애인들이 더 행복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 김대환 회장은 “이번 행사가 사회 참여도가 낮은 여성장애인들의 특성과 삶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이해를 확대하고 지역의 여성지체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체장애인들의 자기 주도성 확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대구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1.5GW, 민자 3조 투자유치’

- 도심 태양광 프로젝트 국내 최대 규모, 전국 태양광 보급률 1위 도약
-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무상교체 등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 대구시, 한화자산운용(주), 협력사(5개), 7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14개 기관

대구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한화자산운용(주)·협력사(5개사)·산업단지관리기관(7개소)과 함께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화자산운용(주)이 대구시 내 산업단지 지붕 및 유휴부지에 최대 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태양광 1.5GW(신고리 원전 1.5기 용량 수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민간투자 사업으로 대구 도심 면적의 15%에 달하는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공장지붕 116만㎡ 전체를 철거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과 함께 친환경 산단 조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시민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홍준표 시장은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둘러본 후, 산단 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정비와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구현을 위해 ‘산단 지붕 태양광 사업’을 구상, 지난 11월 초 한화자산운용(주)과 SRS(주)가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제안, 실무 협의 후 한화·LS·LG·현대 4대 그룹 관련 업체와 대구 성서산단을 포함 주요 7개 산단이 뜻 모아 참여하게 됐다.

한화자산운용(주)은 시 태양광사업에 3조원 규모 전용펀드를 조성 투자하고, LS일렉트릭, 한화시스템,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은 책임시공을 맡고, LG에너지솔루션 AVEL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담당하고,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사는 100% 대구 지역업체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기업에 대해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 교체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 지급 보장 ▲참여기업 전기차 충전기 무상설치·노후 경유차 1만대 전기차 교체 지원 ▲산단의 친환경 스마트 전환 지원 등 파격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사업은

관내 산단 전체 대상으로 대기업 참여로 초대형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관리기관인 산단공단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의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대구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태양광 설치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계통 연계 사항 협의 지원,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원만한 승계 문제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5만톤 감축(지역 온실가스 배출 10.6% 감축) ▲전력자립률 12.9% 상승(17.1%→30.0%) ▲태양광 보급률 전국1위 달성(12.6%(1.1%→13.7%) ▲고용유발효과 28,000명(민간 3조원 투자기준) ▲지역 시공 참여업체 매출액 약1조원 증대(태양광구 조물, 설치 등) ▲참여업체 7,500~8,500억 원 수익(임대료 수익/전기료 절감) 등 직접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농촌교육농장 개장

#### 회룡포장수진품, 전통발효 음식으로 전통식문화체험에 앞장서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12일 전통장류 가공업체인 회룡포장수진품(대표 박명희)에 신규로 농촌교육농장을 개장했다.

농촌교육농장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를 말하며 단순 일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농장을 말한다.

회룡포장수진품 박명희 대표는 2대에 걸쳐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효음식인 장을 생산하는 농장주로 전통의 맛, 기다림을 통한 건강함 등의 가치를 교과 연계 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전통 식생활 교육을 전파할 예정이다.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창의력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체험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룡포장수진품은 지난 11월 예천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콩이 발효되어 청국장이 되는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사와 전문가 평가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미래해양도시 부산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부산 시민 3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해양과학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돼 큰 인기

부산시는 해양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미래해양도시 부산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국립부산과학관(기장군 소재)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미래해양도시 부산 페스티벌’은 부산시가 부산테크노파크, (주)동아시아인쇄와 개발한 해양신산업 분야 생애 전주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해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로, 전국 유일 해양신산업 특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74개 팀 선발에 424개 팀 약 1,400여 명이 참가 신청해 5.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올리는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페스티벌 참가팀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해양신산업에 대한 퀴즈 풀이, 해양과학 증강현실(AR) 큐브

만들기, 스마트선박 만들기, 해양위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교육에 참가한 학부모 A 씨(부산 강서구)는 “부산에 살면서도 해양에 대한 이미지를 잘 떠올리지 못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호평했다. 또한, 학부모 B씨(부산 남구)는 “어린이들도 해양신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라며 관련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해양신산업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라며 “우리는 지역의 우수한 교육시설과 연계해 앞으로도 우수한 해양분야 인력 양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 남원시 귀농귀촌 김장나눔 행사로, 연말 따뜻한 마무리

## 영농교육을 통해 직접 재배한 무·배추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김장김치 전달

남원시는 9일 주생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무·배추를 활용해 김장을 하고, 김장김치를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꿈드레상에 인형회에 전달하여 올해 영농교육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진행됐으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협회의, 실습농장 입주자, 교육 참가자 등 25여명이 참여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영농교육 일환으로 직접 수확한 무·배추를 수확하고 7일부터 9일까지(3일간) 김장김치를 담귀 각 100포기씩 2개소에 전달했다.

남원시는 올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해 '실습농장 활용 영농 장기교육'을 추진해왔으

며, 귀농귀촌 교육생과 하계작물부터 동계작물까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 큰 교육 성과를 올렸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남원시는 내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활용한 △1년 작부체계 영농실습 △귀농귀촌 정착설계 △농촌실용기술 △농업회계 활용 등 예산 40백만원을 투입해 예비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체험·교육장과 만들 계획이며, 실습농장에서 재배한 수확물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큰 기부는 아니지만 귀농귀촌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뜻깊은 전달을 하게 되어 뿌듯하다"

고 말하며,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이러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관내 지역민과 융화되는데도 앞장 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진안고원 명품 토마토"라이브커머스 & 크리스마켓 소비촉진 이벤트 진행

## 연말연시 지역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구매금액별 적립금 리워드 행사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이 오는 14일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토마토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14일 14시부터 네이버쇼핑라이브도전라이브 카테고리를 통해 "진안고원 토마토"의 생방송 판매를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진행상품은 진안군 관내 토마토 농가들을 대표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통하는 과육이 단단한 유럽종 토마토로 준비했다.

특히,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토마토는 재배과정부터 선별포장, 출하까지 안전성을 검증받은 GAP(우수농산물)인증 상품이다. 또한, 해발 400m의 고랭지 청정지역인 진안고원의 지형과 일교차가 큰 기후 덕분에 과육이 탄탄하고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날 라이브커머스는 진안군청 먹거리정책팀 및 진안군 토마토 공선출하회 소속 농가가 함께 출연해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마리네이드, 토마토 치즈구이 등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영양분과 효능 등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날 진안고원 유럽종 토마토는 라이브 시작시간인 14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20% 할인된 특가인 1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구매인증 선착순 10명에게는 5킬로그램 토마토 1박스를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진안고원몰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9일동안 "크리스마켓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구매금액별 적립금 리워드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부터 최대 3만원까지 진안고원몰에서 사용가능한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군청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우리 군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비대면 유통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 익산시, 새해 민생밀착 소통행정 '이청득심' (以聽得心) 강조

## 2023년 새해 시정 길라잡이 사자성어로 선정

익산시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어느 때보다 행정 민감도와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각오를 담아 새해 사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선정했다.

새해 시정 길라잡이가 될 이청득심(以聽得心)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생밀착 소통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올해 민선 8기를 맞아 청청과 소통, 공감을 시정철학으로 삼고 '우리동네 행복버스' 프로그램 진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익산형 행정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경기침체 속 민생경제를 돌보며 핵심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점사업들을 가시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속 가계경제 완충제이자 지역 순환경제를 이끈 지역화폐다. 지역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안착했다.

첫해 발행액 1828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504억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고 올해는 이달 말까지 5,7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해 나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올 초부터 국내 최고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착공과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개청하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익산 대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익산시는 1,000여억원을 돌파한 대규모 국가사업 선정에 따른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부터 제5혁신 산단 조성 등 지역 경제 발전의 전초가 될 주요 현안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 한해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펼친 덕분에 크고



작은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2023년에도 이청득심의 자세로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다아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전주시 완산구, 겨울철 폭설 내려도 도로·보행환경 '문제없게'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도로결빙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9일 제설취약구간을 방문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갑작스러운 대설상황에서도 안전한 도로·보행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엄 구청장은 제설취약구간인 동부대로 경사구역을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설장비를 긴급 점검하고, 대설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체제 가동 등에 대한 부서간의 신속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철저한 제



설대책 마련과 폭설 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인 참여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산구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중점 제설기간으로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상습결빙 도로관리를 위해서 염화칼슘 700톤, 소금 450톤 등 제설자재와 덤프트럭, 살수차 등 69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했다.

특히, 조달청 염수분사장치 설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12월중 주요 제설취약지역인 완산동 용머리고개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 2022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상설공연

# 광한루원

잔여공연 안내

조선시대 대표 정원 광한루원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예술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월광무

우리 전통무예 중 검선무, 응담검무 군무, 기선무 등 응담검무를 체험하고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 장소: 조간녀 살풀이 명무관
- 일시: 22년 10월 9일 15:00 ~ 16:00

- 조간녀 살풀이 명무관: 월광무, 덩덕쿵 어깨춤
- 관서당 남성제: 사랑길 남원 서당을 품다
- 월매진: 번사극 훈양전
- 완월정: 완월정 풍류
- 영주각: 광한정허부 상연사, 광한루원의 발흥경
- 관할사당: 광한루원의 풍물조작단
- 안복채임관 하인당
- 예무원미당

### 광한정허부 상연사

광한정허부의 나룻배(상연사)를 상징하고 그 무대에서 동종의 마음을 담아 펼치는 공연입니다.

- 장소: 광한루원 영주각
- 일시: 매주 금요일 / 16:00 ~ 16:45

### 덩덕쿵 어깨춤

관객들과 다함께 남원춤(사랑춤)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춤을 배우고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 장소: 광한루원 관할사당
- 일시: 22년 10월 22일 17:00 ~ 18:00

### 완월정 풍류

완월정에서 우리의 전통 소리 공연을 바탕으로 함께 따라부르는 체험형 공연입니다.

- 장소: 광한루원 완월정
- 일시: 매주 화, 금요일 / 14:00 ~ 14:45, 매주 수요일 / 16:00 ~ 16:45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육성사업 공연 문의(남원시 관광협의회) ☎ 063-633-5353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

www.namwontour.kr



### 광주광역시, 풍산개 ‘곰이’·‘송강’,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

강기정 시장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잘 키워나갈 것”



“곰이와 송강이는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의 집들이에 초대돼 이같이 환영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광주로 온 ‘곰이’와 ‘송강’이는 전문사육사와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건강 상태 확인 후 적응 기간을 거쳐 12일 시민에게 공개됐다.

‘곰이’와 ‘송강’이는 당분간 전문사육사와 수의사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다 적응 및 건강상태가 안정되면 추

후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곰이’와 ‘송강’이의 새로운 실내보금자리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층(옛 우치동물병원 진료실)에, 산책 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임시놀이터는 열대조류관과 큰물새장 사이 잔디밭에 마련됐다.

광주시는 대통령기록관이 사육환경과 우치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이의 새끼 ‘별이’와 다른 풍산개 두 마리가 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고 광주시도 ‘곰이’와 ‘송강’이의 양육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문사육사와 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적응기간을 거친 뒤 시민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전남도 민원메신저, 도민 주도형 소통채널 강화 다짐

성과보고회...올 한 해 불편 해소 제보 732건 역대 최다

전라남도는 12월 영암 호텔현대에서 ‘2022년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를 열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 주도형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민원메신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2022년 민원메신저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우수 민원메신저 시상, 민원메신저 활동 지원 시군 우수 공무원 표창, 제11기 민원메신저 임원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22년 활동을 담은 영상에선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중화장실 체계적인 관리’, ‘스쿨존 주정차 문제 해결’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보 732건으로 역대 최다 성과를 기록했다.

또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코로나19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서로 격려했다.

이어진 유공자 표창에서는 활발한 활동으로 정책 제안과 도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순천시 관속찬 민원메신저 등 12명에게 도시자 표창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강진군 민원봉사과 박경진 주무관 등 3명의 공무원 시상도 진행해 노고를 위로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장인근 민원메신저 대표는 “고치대 주택가의 계단을 오르는 노인이 손수레를 끌 수 없어 불편했으나, 민원메신저의 제보로 손수레 길을 만들어주는 등 메신저들의 헌신으로 이웃이 행복해짐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참여 민주주의 실천을 통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민원메신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민원메신저는 날



카로운 제보와 품격있는 홍보로 전남의 경쟁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남의 활기찬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남 곳곳의 고충도 발 빠르게 도에 전해주는 등 도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1기 민원메신저는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다.

김병수기자

## 전남도, 국산 쌀로 독특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화제

딸기모찌·오곡 누룽지차·쌀 케이크·쌀맥주 등 지역 대표상품 우뚝

최근 쌀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쌀을 원료로 독특한 가공식품을 개발, 역대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과자나 빵, 맥주 등은 수입산 밀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역 유·무형 자산과 원료를 다른 농특산물과 융합하는 자신만의 특색있는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해양생태 관광지인 여수에서 ‘딸기모찌(찰쌀떡)’를 운영하는 김지나 대표는 연간 32톤(1억원)의 국산 찰쌀과 지역에서 생산한 새콤달콤한 딸기를 이용해 딸기를 품은 찰쌀떡을 생산, 연간 20만 상자를 판매해 역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대표 간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일 아침 가게를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맛 볼 수 있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주문도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딱딱해서 끊어 먹는 누룽지의 재탄생도 화제다. 순천 농업회사법인 ‘쌍지뜰’은 현미와 찰쌀, 흑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오곡 누룽지차’를 개발했다.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간편한 점 때문에 여행객이나 나홀로가구에 식사 대용으로 인기리에 판매돼 연간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해읍 쌍지뜰 대표는 “유기농쌀에 짙은 색대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넣은 ‘버섯현미초코볼’, ‘블루베리현미



초코볼과자’를 개발 중이며 내년에는 수출시장에도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연 20톤)만을 고집하며 아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 업체도 있다.

장성 ‘올바름’은 유기농쌀 90% 이상이 함유된 ‘고소한통키’, ‘팡과자’, 양파떡볶, 고구마떡볶 등 20종을 생산, 자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올바름’과 수출 등을 통해 연간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파밍하우스’ 김중구 대표는 30년 경력의 빵 전문가로 2007년부터 100% 국산 쌀을 연

간 3톤, 우리밀 10톤 등을 이용해 쌀 케이크, 롤빵, 쌀 과자 등 식사 대용식 10종을 생산하고, 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농촌융복합 성공 모델을 구축했다.

쌀로 만든 맥주로 엠지(MZ) 세대의 눈길을 끄는 곳도 있다. 담양 수제 맥주 제조업체인 (주)담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형락)은 2016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담양산 친환경쌀을 이용해 목 넘김이 좋은 맥주를 개발했다. ‘담주브로이’라는 브랜드로 특산물 판매장과 수도권 맥주점 등에 대나무맥주, 쌀맥주 등을 판매해 연간 2억 2천

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영암 달빛무화과쌀빵, 나주 배쌀빵, 해남 고구마떡.감자떡 등 쌀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 특화빵도 소화하기 편하다는 장점과 독특한 모양새로 인기를 얻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갖춘 생산설비 구축과 홍보 및 판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케이(K)-과자를 수출 효과 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해남군, 한우 수급 안정 대책 적극 추진

해남군은 한우 사육 규모 확대에 따른 도축 확대에 도매가격이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한우 사육 두수는 2022년 12월 356만 마리, 2023년 12월 358만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체수 확대에 따라 도축 마릿수도 2023년에는 평년대비 22% 증가한 94만 마리, 2024년에는 102만 마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남군에서는 2022년 상반기 5만 3,390마리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4,000여 마리가 증가했다.

이에따라 2022년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 경매내역에 따르면 2022년 10월 임신우는 평균 582만원, 암송아지는 평균 233만원, 수송아지는 평균 423만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각각 58만원, 123만원, 45만원 하락하여 수급관리 대책이 절실

한 상황이다.

군은 도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배합사료 등 사료가격은 상승함에 따라 농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송아지 및 번식용 암소 추가입식 자제와 번식용 암소 감축 등 자율적 사육규모 조절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군비 9억7,250만원을 투입해 사료운송비와 사료포장재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영개선 및 한우 개량을 위해 군비 총 6억2,800만원을 투입해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가축인공수정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우 사육농가의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추가입식 자제와 저능력 번식용 암소의 선제적 출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 화순군, 아름다운 화순관광 사진 51점 선정·전시

구북구 화순군수가 제5회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회에 참석해 화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준 동호인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갤러리에서 ‘제5회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사진 공모 시상식’이 열렸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순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289점의 작품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펼쳤다.

화순8경, 화순의 관광·문화유산, 국화향연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5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애의 금상은 눈 덮인 운주사의 품안에 안겨있는 불상을 연출한 박지연 씨의 ‘전불전탑의 겨울’이 차지했다.

은상은 김수연·김동진 씨가, 동상에는 김은하·홍성현·박정은 씨가 출품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임근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화순지부장은 “화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주신 모든 동호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내년에도 아름다운 화순을 알리는 사진 공모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내년에는 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 사계절 꽃축제가 열리는 등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화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름다운 화순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 ‘영광모싯잎송편’지리적표시단체, 전국 최우수상 쾌거(사)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

영광군은 지난 11월 2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2022 지리적표시 우수단체 선발대회에서 지역 대표특산물 영광모싯잎송편 생산 단체인 (사)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대표 대균년)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우수단체 선발대회는 우수한 지리적표시품을 발굴하고 등 록단체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 유지 도모를 위하여 실시됐으며, (사)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은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유지.계승을 위한 노력, 시장경쟁력 강화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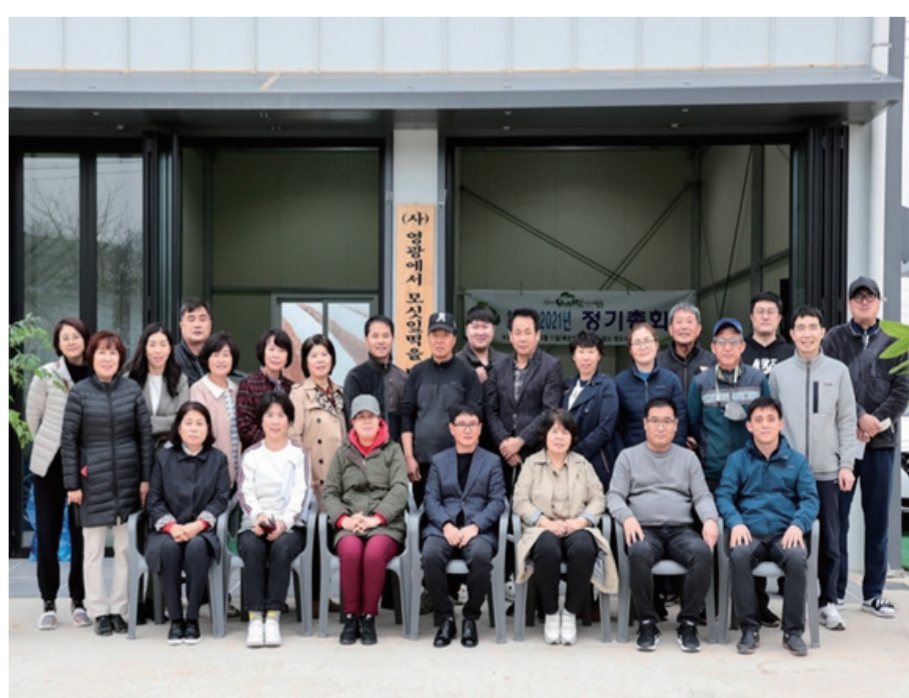
대균년 대표는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동반 성장해 영광 떡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며, “영광모싯잎송편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도 상승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모싯잎송편은 원재료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이어지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효과 특산물이다”며, “이번 수상으로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모싯잎송편은 지난 2017년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104호로 등록됐다.

정광남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 안전만큼은 "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

간부회의서 겨울철 철저한 제설대책 '시민 안전 최우선' 강력 지시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겨울철 철저한 제설대책과 '시민 안전 최우선'에 대해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날 박 시장은 지난 6일 눈이 내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것에 대해 전 부서 제설대책 속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설에 모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얼 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과 같은 일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제설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안시는 제설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신속한 제설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제설 지체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동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출근 시간 무렵 강설 예보가 있을 시에는 오전 4시 전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시계 부분 우선 제설작업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설차량 회항 서쪽 종합운동장, 북쪽 직산 송기과선교, 동쪽 목천 예산국토전진기지 등을 임시

전진기지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제설차량을 장기임차해 제설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로 교차로 내에는 제설 모래를 비치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찰서 에 포리물기 단속 등 교통통제를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별, 노선별, 소요 제설량을 정밀하게 분석해 동남구와 서북구 지역구분 없이 가장 효율적인 제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동서고가로 등 상습 결빙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일 오후에는 아산시청에 방문해 양 시 접경지역에 대한 제설 우선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지역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제설 차량이 시계 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협의했으며, 시계(市界) 부분 제설을 추진하다가 제설재가 소모되면 가장 근접한 전진기지에서 제설제를 우선 사용 후 사후 정산기로 합의했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이 외에도 스마트 승강장 확대 설치와 더불어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를 지시하고, 삼거리공원 주변 능수버들 식재 등 능수버들의 고장 천안을 대표하는 버드나무 식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천안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에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최정근/기자

## 충청남도, 국내 유일 '지방자치단체조합' 탄생

도+홍성·예산군 추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승인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될 국내 유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마침내 탄생했다.

도는 홍성·예산군과 공동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치기구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특히 국내 유일 사례로, 지자체 간 갈등을 풀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에 따라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본부장 1명(서기관)과 2과 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의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의 내포문화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기능을 조정해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본부장 1명을 포함해 5명 안

팍을 배치, 조합설립 등기,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세입예산 확정 등 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이어 같은 해 3월 나머지 인력을 파견해 기구를 완성하고, 출범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구 설립 준비 기간 사무실은 예산군 삼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3층 공간을 임시 사용한다.

본격 운영에 맞춰서는 홍성군 홍복읍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했다.

기구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에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혁신도시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용봉산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전경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조정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 간 협치 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 초기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생활권 내 종합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킴으로써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 양양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추진

이달까지 버스정보안내기 28대, 차량단말기 17대 추가 설치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과 동서고속화철도를 통한 도내 교통허브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속초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양양군까지 연계하는 속초-양양 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한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통시스템 첨단화를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속초와 양양을 운영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운행정보를 이 용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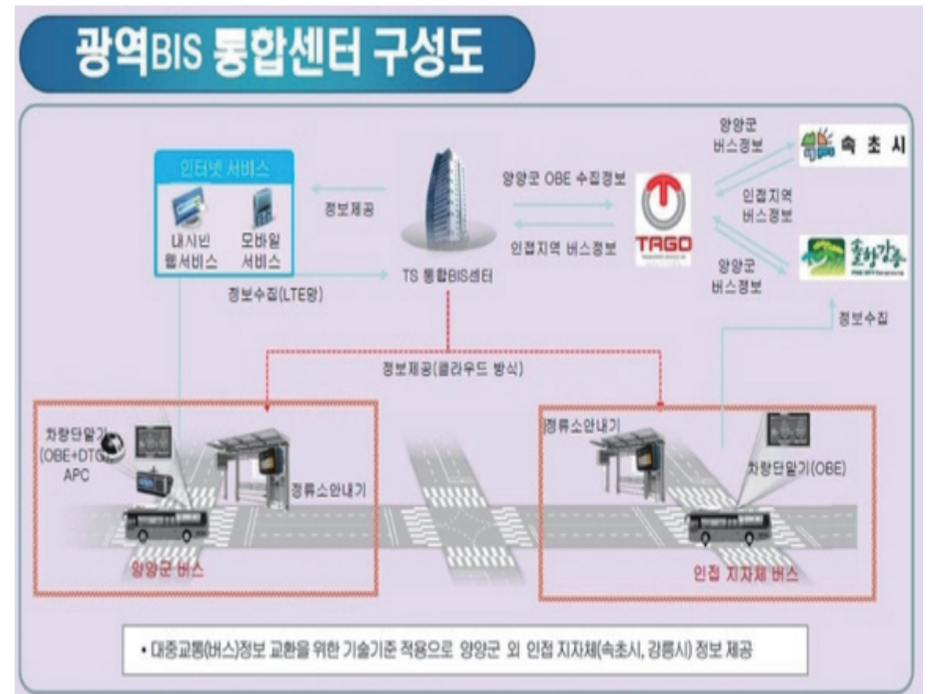
이를 위해 군은 3억 4,488만 원(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사업을 착수했고, 이달 말까지 버스안내기 28대와 차량

단말기 17대를 각각 정류장과 버스에 설치한다.

기 구축한 버스정보안내기 6대 외에 28대가 새로 설치되면,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9번·9-1번 버스를 비롯한 군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의 운행 정보가 7번 국도(강현면 물치리~양양읍 임천리) 및 읍·면사무소 인근 정류장 34개소에 실시간으로 표출되어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스카우트 제천불꽃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열어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제천불꽃대 지역대 스카우트가 지난 10일과 11일 1박 2일간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 스키장에서 동계스포츠 체험캠프를 실시했다.

제천시청소년센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동계스포츠의 대명사인 스키 기능을 익히고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여 협동심과 배려심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대원들은 입소식, 스카우트 예법 교육(선서와 규율, 신호법 등)을 시작으로, 전문 강사들에게 스키 장비,

규칙 안전사고 등을 배우며 기초 수업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습 내용을 다룬 눈높이 교육을 수강했다.

이 모(제천중1)대원은 "이번 캠프로 스카우트 예법을 배웠고 스키 실력도 좋아졌다"며 "무엇보다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를 통해 대원들이 체력을 함양하고, 단체생활에 따른 배려, 협동심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영동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영동소방서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체로 최대 11m까지 비산돼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에 착화될 수 있으며, 또한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5,500여건에 달하며 이중 27명이 숨지고 427명이 다쳤다.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

재 취급 작업 시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고,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 위험물질은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고, 화기 취급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적치 하지 않으며,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공사 현장은 불이 빠르게 번지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 동해시, 생산성대상 우수시군 선정 성과

지역경제 분야 성과 인정(장려상), 우수 지자체 3개 도시에 포함



동해시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올해 생산성대상 지역경제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수상 지자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동해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행정안전부)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평가 등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생산성 대상은 생산성지수 측정과 우수사례 평가방식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평가 부문에서는 전국 136개 지자체에서 366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최종 12건이 선별 됐으며,

동해시는 '석회석 폐광지, 창조적 복구를 통한 특화관광단지로 재탄생'을 주제로 한 무릉별유천지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지역경제 부문에서 충주, 완주와 함께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됐다.

이 같은 성과는 폐광산을 활용하여 차별화시킨 무릉별유천지가 개장 1년 만에 13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등 전국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심규언 시장은 "무릉별유천지는 새로운 시도로 창조적 생산성이 구현되는 공간"이라며, "폐광산 복구의 새로운 장을 연 이곳에 다양한 관광요소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단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강원도,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 활력 북조성

### 안정적 일자리와 정주여건 조성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강원도는 만39세 이하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적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지역특화 기업에 2년 동안 매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참여청년은 근로 후 3년차에 연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의 자산취득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창업청년에게는 연간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창업한 청년이 지역청년을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월 20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1,112억원을 투입하여 총 6,187개(11월 말 기준)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3년도에는 173억으로 804명의 기 참여자를 계속지원하고 147명의 신규 청년을 모집하는 등 총 951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과 청년은 시군 일자리담당자에게 접수 가능하다. 전길택 강원도 경제국장은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에 청년이 유입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도록 미취업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소상공인의 힘으로 새로운 경북, 지방시대 열자

경상북도는 지난 1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화합과 소통의 장인 '2022년 제1회 경북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전후로 열린 예정이었으나 지난 10.29 참가자 인한 국가예도기간 선포로 약 한 달간 미뤄 개최했다.

이날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대회는 '소상공인의 힘! 힘내자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소상공인 우수제품 전시회 ▷키즈체험존 ▷소상공인 제품 품평.상담 등으로 진행했다.

개막식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소상공인 36명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고, 축하공연과 퍼포먼스로 코로나19 장기화와 4고(고물가, 고금리, 고풍환, 고유가)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



과 희망을 불어 넣어 줬다. 부대행사로 는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소상공인 우수제품 전시회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소상공인 제품 품평 및 상담회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각종 체험존 등을 운영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방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현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

다"며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영안정과 매출향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

###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2일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본 사업은 기존 교류(AC) 중심의 우리나라 배전 전력망에 중간전압의 직류(MVDC) 선로를 병행하여 연계하는 교류와 직류 혼용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①핵심부품-기기 및 ②운영기술 개발, ③테스트베드 구축에 7년간 1,905억 원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AC/DC 혼용배전망 구축 완료로 목표를 한다.

올해 8월 선정평가를 거쳐 10월에 우선적으로 7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 시행체제를 확정했고, 이번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본격 착수를 알리게 됐다. AC/DC 혼용 배전망은 기존 전력계통을 활용하여 교류 배전망과 함께 직류 배전망을 추가 연계하는 신개념 전력망으로,

①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용량 확대와 함께, ②변환손실(AC→DC) 저감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③기존 배전망을 활용하므로 전력망 신규건설 시 우려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해

에너지 환경변화	배전망 환경변화	배전망 운영 상의 핵심이슈	기술적 해결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분산전원 확대 정책 강화</li> <li>배전계통의 복잡도 증가</li> <li>도심전력 수요의 집중 및 증가 심화</li> <li>DC 부하 및 DC 전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전설비 접속용량 포화</li> <li>배전설비 증설 (부하부담)</li> <li>배전계통의 복잡도 증가</li> <li>도심전력 수요의 집중 및 증가 심화</li> <li>DC 부하 및 DC 전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배전설비 확장 한계</b> 분산전원 연계 및 도심수요 대응을 위한 배전망 증설 시, 변전설비 추가에 따른 수용성 한계</li> <li><b>배전설비 증설 (부하부담)</b> → <b>변전소 추가 (송전선로 연계)</b> → <b>주민반대</b></li> <li><b>배전계통 제어 한계</b> 임차력/화력 발전원과 다른 운전특성을 갖는 배전계통의 분산전원 확대에 따라 <b>불확실성이 높아진 배전 계통은 능동적이고 다방향적 전력 제어 필요</b></li> <li>특히, 현 전력공급체계는 <b>재난 발생 시 사고 확산 가능성이 높음</b></li> <li><b>송전선로 사고발생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b> → <b>배전망 전원 공급 차단</b> → <b>사고 확산 (리송전 및 배전망)</b> → <b>대규모 정전</b></li> <li><b>전력변환 손실 증가</b> DC 전원/부하 증가 시, AC배전에 따른 AC/DC 변환손실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접속수요 대응</b> 배전설비 접속용량 확대 ▶ 추가전원 확보 (선저지 송전선 등 도심수요 대응, 분산전원 연계)</li> <li><b>선로이용률 향상</b> ▶ 배전선로 이용 효율 향상 (분류요량 투자 효과)</li> <li><b>운영 효율 확대</b> 배전 손실 최소화 ▶ AC/DC 및 전압/전력 변환 손실 최소화</li> <li><b>고장 시 정전회피</b> ▶ 계단정전 및 재전공</li> <li><b>사회적 수용성</b> 기기 안전성 ▶ 단거리기압 내구형 및 사고 대응</li> <li>인체 안전성 ▶ 배전망과 주거시설 등에 대한 인체 안전성</li> <li>환경 친화성 ▶ 배전망의 환경적 수용성</li> </ul>

▲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결,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 단계인 MVDC 배전산업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직류,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 전력망 계획,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및 에기평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기술개발 및 신뢰성 제고, 기술-정책 간 유기적 연계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성지아/기자

## 나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 지원 다각화

### 지역화폐 10%할인연장, 전통시장-위생업소 시설개선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지역 상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경영 안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제감형 종합대책을 수립,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힘써왔다.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소상공인 창업-운영자금 융자 지원,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도모했다.

시는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4개 업체의 대출액 이차보전에 8400만원을, 창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8개 업체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기존 9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11월까지 연장했으며 11월 말 기준 1181억원 규모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떡깨비' 운영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11월 기준 관내 음식점 전체 8.2%인 373개소가 가맹점으로 입점했으며 지속적인 업소 방문을 통해 공공배달 앱 이용 혜택 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기 일부를 지원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 관광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 28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입식테이블 전환, 바닥·화장실 보수, 도색·도배 등 시설개선 자금의 50%(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골목 상가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남평5일시장, 영산포품물시장에 각각 5억 6000만원과 4억 2700만원을 투입해 LED 조명설치, 점포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경영 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민주소상공인위원회 김준경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상가변영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20여명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와 향광민 나주시의회 부의장, 김정숙, 박소준 시의원,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가 공실 활용, 상권 인구 유입 정책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년도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기업들,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났다!!

###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열려, 도내 62개 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 본부는 9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수출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공략으로 이날 빛나는 수출의 탑과 수출유공 포상을 받았다.

☞(심택과) ☞(에코프로비엠) 10억 불탑을, 더블유씨피(☞)가 2억불탑, 넥스플렉스(☞)엔캠이 1억불탑, 서울전선(☞), 티이엠씨(☞)가 7천만불탑을 수상하는 등 올해는 총 62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서는 서울전선(☞) 이장열 대표이사가 수출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대전기계 광노근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밖에 (☞)코스메가코리아가 조임래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그리고 (☞)와 이엔텍 김현식 차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1명이 세계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또한, 고현정 영농조합법인 김성열



이사를 비롯한 총 26명이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이투텍 최봉규 대표이

사 등 5명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최고 수출탑은 8억불탑 1개사였으나, 올해는 10억불탑이 2개사나 됐고, 또한 작년 최고 훈장은 동탑산업훈장 1개사였으나, 올해는 은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훈장까지 수상한 최고의 한해가 됐으며, 작년에는 수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쾌거를 이뤘다.

최근 어려운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도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나, 충청북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7%가 증가한 274.7억 달러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영한 충청북도지사는 "올해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의 열정과 노고덕분이다"라며,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의미있는 성과를 이룬 충북 무역인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포스코 김성호 노동조합 위원장의 얘기를 듣다”

대한민국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조)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들 두 노조는 상호간 추구하는 노조 가치관이 확연히 다른 단체이다.

한국노조는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으로 발족, 6·25 後,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개칭했다. 1955년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 단체로 인간다운 노동자의 권리를 비롯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 확보, 임금·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 노사간 대등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 권익 신장, 가맹조직 단결 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 전개, 민주 사회정의 구현, 국제노동운동 발전과 세계평화 공헌 등, 흔히 건전 노조, 착한 노조로 불리어 지고 있는 단체이다.

반면, 민주노조는 1995년 11월 조직된 전국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이다. 임금, 단체협약 갱신 투쟁과 함께 정경유착 근절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의료보험 통합, 교육개혁, 연금기금 운영,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 세계 개혁(근로소득세율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을 요구하는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한 민주노동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이다보니 정치적인 색채가 너무도 강한 노조로서 지난 9월,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한 화물노조와 같이 투쟁일변도로써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단체이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강성 노조로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사측과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착한 노조, 건전 노조로 불리어 지고 있는 노·사협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철강업계의 대부 포스코 노동조합을 찾았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제19대 포스코노조위원장 선거에서 52%이상의 득표로 김성호 노동조합위원장을 당선시키고, 지난 1일 취임식을 가졌다. 취재진은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 노조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49세의 젊은 리더로서 첫인상이 호감이 가는 외유내강을 지닌 분으로 인터뷰간 막힘없는 노조관과 노조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나이인데도 왜 그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취재 전, 솔직히 본사 대표이사의 포스코노조 취재 지시에 처음엔 매우 망설였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반대와 투쟁·파업으로 나라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 썩 좋은 단체로 생각하지 않은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여러 루트를 통해 포스코 노조에 대해 알아보고, 취재진은 그동안 노조에 대한 가졌던 사고가 지나친 편견에서 치유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날 만나 빈 포스코노조위원장의 노조관을 듣고 그동안 가졌던 편향된 선입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를 갖게 됐다.

이날 김성호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나의 노동조합임에 대한 생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포스코 노조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포스코 노동조합에 대

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제 포스코 노동조합은 새로운 리더인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누구도 썩보지 못한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지 않을까 기대해보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그와의 진솔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종합일간지 문화매일신문의 경북·대구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기업인 포스코 건

밝힌대로 “포스코 노동조합은 노동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작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나아가서는 걸림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Q : 지난 일지만 10월 26일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 52%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제19대 노조위원장에 당선이 되었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쉬운 점은 현 세대간의 갈등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문화를 보다 활성화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지금 포스코 조합원들이 8,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려면 무엇보다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이다. 불협화음 없는 포스코노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

A : 앞에서 언급드린대로 위원장은 노조가 우선이다.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찾아 꾸준히 노력해 노사간 상생으로 상호 win-win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노조를 이끌어 가겠다. 사측과 협의할 사안에 대해 집행부 한사람의 독단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 의견을

고 화물노조 문제는 노코멘트 하겠다.

Q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A : 저는 위원장으로써 “自主, 民主, 統一의 3가지 키워드를 실천하는 조합”을 만들고 싶다. 즉, 집행부 한사람의 독단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소통을 통한 중지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자주(自主)와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민주(民主),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통일(統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포스코 노조가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선도하는 ‘건전노조, 착한노조’를 만들어 가고 싶다.

\*\*\*\*\* 이렇게 해서 건전노조, 착한노조의 대명사인 포스코 김성호 위원장과와의 대담이 모두 끝났다.

오늘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왜곡한 노조에 대한 불신의 편견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그의 노조관은 세간의 편향된 노조관이 아닌 노사 양측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가는 매우 건설적인 노조관으로써, 노조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인식하는 성찰의 계기가 돼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포스코 김성호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이란 키워드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고, 그의 노조관은 매우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타사 노동조합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건전노조, 착한노조’의 표본인 ‘롤 모델’이었다.

한편, 지난 달 24일부터 민주노동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개시한지 16일만인 12월 9일, 파업중단 찬반투표를 실시해, 62%의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했다. 이들의 전격적인 파업 철회는 정부의 범우개시 명령과 MZ세대의 반유, 국민들의 불편 등으로 파업 동력이 상실돼, 파업 종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어떤 노조단체든 파업을 빌미로 국가경제를 흔들거나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노조활동은 하도, 민주적,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노조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노사운동을 해 나가는 건전노조의 방향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소중한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노동조합들이 포스코 노조처럼 노·사간 상생으로 상호 win-win하는 노조활동이 하나의 ‘롤 모델’이 돼, 널리 확산된다면, 기업 노조원들의 권익신장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한번 성심껏 인터뷰에서 밝힌 참된 노조관을 보여준 김성호 위원장과 8,000여 노조원들의 화합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포스코노동조합의 가치가 더욱 더 빛을 발휘해 나가길 기원드립니다.

윤근수기자



설 제 19대 노조 위원장에 당선 되셔서 업무 수행하고 계신 위원장께 늦었지만 다시한번 감축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포스코 노동조합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고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A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입니다. 저희 조합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 문화매일신문 경북·대구 지사장 윤근수, A : 포스코 제19대 노조위원장 김성호로 말씀하며 이하 존칭은 생략합니다)

Q : 먼저 위원장님의 가족관계와 개인 소개, 그리고 노조관은 어떠한지.....

A : 1975년 4월, 포항에서 태어나 세명고, 동국대 법학과, 서울동국대 노동법,회사법 석사를 수료하고, 1997년 포스코에 입사 25년째 이르고 있다. 가족과 자녀 1명이 있으며, 노조관련 활동은 지난 2018년부터 노조임원활동을 해왔고, 지난 2022년 10월 26일 제19대 포스코 노조위원장에 출마하여 52%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어 14일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의 노조철학은 취임사에서

노 조원들에게 다 가졌기에 조합원들 52%이상이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저와 노조운동 방향은 어떤지....

A : 이번 19대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노조원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목소리와 MZ세대에 대한 노조 비전 철학을 제시해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었고, 선배노조원들이 젊은 위원장이 노조를 이끌어 가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지배적인 의견에 힘입어 당선 됐다. 따라서 향후, MZ세대의 비전과 경험 많은 선배노조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소통의 철학으로 선배 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고 챙기는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란 말이 있다.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파악된 포스코 노동조합의 장점과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A : 노동조합은 사측과 동등한 관계로 출발하기에 그래서 노·사협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사는 상호존중의 합리적 관계를 회복하고 추구해 나가는게 최대의 목적인데 이것이 우리 조합에서 큰 장점으로 잘 되고 있다. 다만, 좀 아

A : 위원장이라고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 3가지 복안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조합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첫째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게 하되, 결코 돌발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회사의 위기가 오면 이 위기는 곧 노조의 위기가 되기에 이럴 경우 조합이 사측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둘째 노조원을 항상 챙기는데 최우선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정치적 문제는 관심을 쏟을 시간도 여력도 없다. 오직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데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셋째 노조 가입은 자유다. 집행부를 비롯, 조합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가입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을 잘 운영해 노조가치가 최우선이 돼도록 모범을 보이는 노조상을 만들어 갈 복안이다.

Q : 이제 노조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조원들을 대변해야 하고 또한 회사측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에 특히 중점을 두

질 에 따라 통일된 한 목소리를 사측에 반영해, 노조원들의 불협화음 요인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측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Q :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각 기업들의 건전노조는 참 소중한 덕목이다. 위원장께서는 ‘건전노조와’ 시켜 나갈 방안과 이번 전국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A : 노조는 생떼를 쓰는 노조가 돼선 안된다. 오직, 합리성, 민주성, 자주성에 입각,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측의 바라는 방향을 검토해, 최선의 상호 접점을 찾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건전노조’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저의 각오는 오로지 포스코 조합원만 보고 걸어 가기 위해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 박정희 정신으로 새희망 구미시대를 열다

박정희대통령 생가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그림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이 민족 오천년 가난을 극복하게 하신 위대한 영웅 박정희대통령!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등 박정희대통령 탄신 105돌을 축하하는 송모단체들의 현수막이 생가 및 역사자료관 주변을 가득 매웠고, 윤석열대통령의 축하화환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전라북도도와 광주광역시 새마을회원 등 7천 여명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최근 지방 소멸이라는 극단적 위기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상하시어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신 박정희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동서화합의 협력을 당부하고, 반도체특화단지 구미지정을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고 피력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입국을 통해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낸 위업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영원히 기억 될 것이며,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에는 대통령님이 이끌어낸 ‘하면 된다’는 정신이 바탕이 됐다. 앞으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박정희 정신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정희대통령은 가난의 한을 끊어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설계자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인물로 특정 이념이나 일부 세력만의 우상이 아닌 지역, 세대, 계층, 이념을 넘는 위대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새마을회 구자광 회장은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마을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동서화합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자”고 인사했다.

유족대표 박준홍 총재는 “이 자리가 바로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시어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곳이다. 새마을정신을 되살리는 의미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구미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미시는 탄신 105돌의 의미를 되새겨 사진 전시회도 개최했다. 박정희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 역사자료관 및 금오산 일대에서 사진 105점을 순회 전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진전을 통해 책에서 배우지 못한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구미지역 대한씨포터즈봉사단, 구미차인회, 구미희, 중수회, 구미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구미시협의회 등 주요 단체의 봉사자와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바른유병원, 해병전우회, 새마을교통봉사대, 경찰자율방범대의 안전·의료·교통지원으로 뜻깊은 행사를 치를 수 있었으며, 이봉원/기자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향후 박정희대통령 위상 제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해마다 20여만명이 찾고 있는 박정희대통령생가는 구미시 상모동 1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생가는 초가로 이루어진 생가와 안채, 추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추모관은 해마다 10.26일 추도식, 11.14일 탄신제를 치르며 수많은 추모객 및 송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18평 규모로 협소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님의 그 원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위상에 맞는 송모관을 건립하여 님의 유산을 이어나갈 고향 도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송모관 건립을 위해 2023년 박정희대통령 송모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1년 9월 28일 박정희대통령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연구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재조명하여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관한 역사자료관은 ‘조국 근대화의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 박대통령 유품이 전시된 상설전시실과 100주년 맞이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다’ 특별 기획전, 역사자료관 개관 1주년과 금오공고 개교 50주년 “기능인재” 공동 특별 기획전시 등을 통해 소통하기 쉬운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박물관 전시 기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미시는 “박정희 정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유류 공간을 활용하여 대통령 사진, 영상물 등을 제작 설치하는 콘텐츠 보완 및 개편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품을 공동전시하여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민에게 박대통령을 알릴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 송모관 건립을 시작으로 ‘박대통령 생가-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 일대를 구미의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지역 주민과 합의를 ‘사곡역’ 명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변경(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970, 8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물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제심의 후 취소된 박정희대통령 탄신 기념우표 발행을 재추진하여 대통령의 업적·정신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최만식/기자

## 서울디자인재단, 우주의 질서 담은 활자세계...DDP 전시로

DDP 디자인갤러리에서 '진달래&박우혁: 코스모스'전 개최(12.09.~'23.3.26.)

국가명을 국가의 크기와 고유 색상에 맞게 세계지도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이미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용된 메뉴들의 명칭을 색감과 질감을 살려 입체적으로 표현한 유명 버거 광고도 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포스터, 잡지, 광고 등에 자주 쓰이는 활자 디자인(이하 타이포그래피)이다. 타이포그래피는 서체의 종류, 크기, 자간, 여간 등을 재배열하거나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글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특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용된다.

'말양' 영화 로고타이프 작업으로 국내 알려진 진달래&박우혁 예술공동체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전시 '진달래&박우혁: 코스모스'를 개최한다. 전시는 타이포그래피를 두 작가가 최근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설치, 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했다.

전시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에서 지원하는 '디자인 전시 시리즈' 일환으로, 12월 9일(금)부터 23년 3월 26일(일)까지 DDP 1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린다.

'디자인 전시 시리즈'는 각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전문 큐레이터로 참여시켜 전시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이고, 트렌드의 생생함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전시 주제는 '코스모스'다. 전시 기획자인 진달래&박우혁 작가에게 '코스모스'를 주제로 선정된 이유를 묻자 "코스모스(cosmos)는 우주 만물의 질서를 뜻하는 단어다. 지난 우리의 여러 작업적 시도들은 불확실하고 고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만물이 질서를 가지고 있듯 우리의 작업도 지금 와서 보니 어떤 질서와 조화로 인해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는 우리의 작업 여정을 함축해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진달래&박우혁의 그래픽 작업은 가장 작고 유일한 타이포그래피 요소인 '활자'를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분과 전체, 분해와 조립, 반복과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기법은 그들의 모든 그래픽 디자인 작업의 공통된 요소다.

그들의 작업은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기초로 하지만 글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타이포그래피란 '글자와 이미지의 형태'가 아닌 '움직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은 우주의 유기물을 상징하는 초형물과 우주선, 우주 공간을 연상케하는 전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진달래&박우혁이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작업한 그래픽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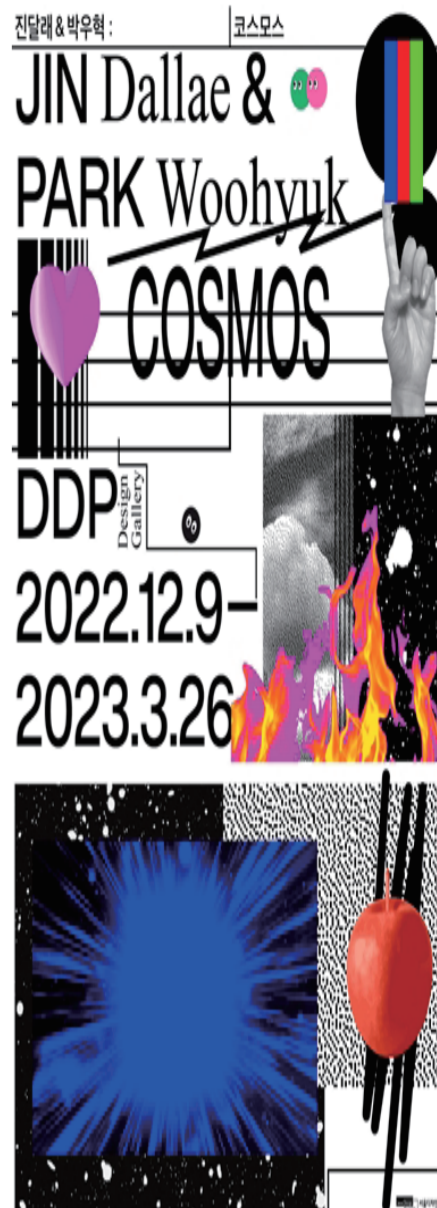
결과물이 영상물 40여 점과 인쇄물 120여 점으로 전시된다. 작품은 안녕(평안)한 세상을 바라며 2011년부터 발행한 비정기 신문 '아카이브안녕 1~21호'과 북 디자인 '스탠퍼드 철학 백과와 항목들 시리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규칙과 논리를 이탈한 징후와 파편을 담아 그 자체로 예술 작업의 일부가 된 신문 '아카이브안녕'과 그래픽을 설치,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로 확장한 '마스터 플랜: 화합과 전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위한 단초 역할을 해왔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자신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유기분자는 우주 어디에서나 생명에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두 작가는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해 "우리들의 작업 활동은 암흑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찾는 여정이며, 우주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작업용 '유기분자'를 확인하고 채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서울라이트 DDP' 행사 기간 동안 '우주'라는 공통 주제로 열려 이 기간 DDP를 방문하면 전시와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전시는 무료이다.

최광수/기자



## 경기문화재단, 미술장터 개최... 아트경기 작가의 미술품과 함께 12월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세요.

- ◎ 오는 10일부터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내 위치한 아트팩토리에서 《2022 아트경기 미술장터》 개최
- ◎ 아트경기 작가 50인 전원이 참여, 20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이 한자리에
-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전시기획으로 12월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지역 시각예술작가 발굴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2022 아트경기 미술장터》를 오는 12월 10일(토)부터 12월 31일(일)까지 파주 아트팩토리에서 개최한다. '미술장터'는 경기도형 미술품 전시·판매 축제이자 아트경기 대표사업으로 지난 9월 서울 광화문 '아트조선스페이스'와 판교 '아브뉴프랑' 개최에 이어 파주 '아트팩토리'까지, 2022년 한 해 동안 풍성한 미술축제로 가득 채운다.

이번 '미술장터'는 협력사 올댓큐레이팅(대표 문예술)의 기획으로 2022년 아트경기 사업에 선정된 작가 50인 전원이 참여, 회화부터 조각, 사진 등 200여 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특히 미술품을 처음 접하는 관람객부터 미술애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기획과 대중적인 작품가로 컬렉터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미술품 감상과 소장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가 열리는 '아트팩토리'는 2004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 개관, 수많은 기획전과 유망 작가를 배출한 화랑으로 올해 12월, 전시 공간을 신축하며 첫 개관전으로 '미술장터'를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미술장터와 함께 준비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최재혁(소마미술관 큐레이터) ▲황희승(아티테인 디렉터) ▲정일주(월간퍼블릭아트 편집장) 3인의 미술전문가를 초청, 12월 16일(금), 17(토) 이틀간 미술시장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참여 작가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지지씨멤버스(https://members.ggcf.kr/)를 통해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경기 누리집(artgg.ggcf.kr)과 경기문화재단 누리집(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31-7237~8  
조혜영/기자

# 2022 아트경기

전시일정 2022.12.10-12.31 (공휴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11:00-17:00  
전시장소 아트팩토리(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63-15)  
오픈일 12.10(토) 오후2시  
주최 경기문화재단, 파주아트팩토리  
주관 올댓큐레이팅  
후원 아트팩토리, 아트맵

미디어파트너 ART MAP

문의 031-231-7237~8  
artgg.ggcf.kr

## 화천군, 접경지 화천 아이들 위한 송년 문화예술 공연 풍성

화천군은 연말을 맞아 접경지역 화천의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는 오는 10일 오후 3시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대안후 놀이판, 오늘의 광대' 공연을 개최한다.

화천군과 예인집단 '아라한'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방방속속 문화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8대 농악의 가락을 차용한 공연, 3m 높이의 줄 위에서 선보이는 48가지 화려한 줄타기 기예로 반듯함이 채워진다. 사내도서관 역시 같은 날 송년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에서는 독후활동 키트체험이 45분 간 진행된다. 또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 음악과

빛을 이용한 '레이저&LED 트론 댄스' 공연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연령별로 나눠 자개 도어벨 만들기, 산타비누 제작, 도서대출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열린다.

화천어린이도서관도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송년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서는 크리스마스 샌드아트와 마술 공연이 열린다.

또 도시락 케이크 만들기, 캔들 홀더 만들기, 도서대출 이벤트, 플라로이드 사진찍기 이벤트 등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순훈 화천군수는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했음 아이들 송년공연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화천의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 '홍김동전' 박진영의 '그루브백' 챌린지 벌교여고 장악!

KBS '홍김동전'이 JYP 박진영의 지원 사격 속에 벌교여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펼친다.

최근 시청률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시청률 역주행을 시작한 KBS 2TV에는 '홍김동전'(연출 박진영 이명섭)의 18회 '사연따라 탄따라' 특집에는 특급 게스트 박진영이 출연해 1학년이 한 명도 없는 시골의 작은 학교 '벌교여고'의 신입생 유치를 기원하는 서프라이즈 게릴라 콘서트를 갖는다.

오늘(11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되는 '홍김동전'의 '사연따라 탄따라' 특집에서 박진영은 '엔니쓰'로 프로듀서와 걸그룹 멤버로 인연을 맺은바 있는 홍진경-김숙과 2PM 우영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함께 한다.

벌교여고 각 교실로 급습한 '홍김동전' 멤버들은 학생들에게 '급식실에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공유했고, 학생들은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급식실로 모여든다.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선물은 다른 아닌 JYP 팀으로 박진영과 세션, 댄스팀이었던 것. 이를 발견한 벌교여고 학생들은 놀라움과 행복감으로 가득찬 탄성을 내지른다.

박진영은 자신의 밴드팀과 댄스팀과 어우러져 고 퀄리티의 무대를 쏟아낸다. 빈틈없이 꽉 찬 무대에 '홍김

동전' 멤버들과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무대에 시선을 고정했고, 박진영은 무대에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 내년 신입생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덕담을 건넨다.

이어 벌교여고의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한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국어 선생님은 박진영이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학생들에게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했는데 '너희들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마음은 모두의 눈물샘을 자극시켰다.

이어 박진영과 멤버들, 그리고 벌교여고 학생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박진영과 멤버들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용기를 얻은 벌교여고 학생들은 '그루브백' 챌린지에 점점 스며들며 열기를 높였다. 박진영의 본격적인 '그루브백' 무대가 시작되자 음악에 맞춰 '홍김동전' 멤버들과 벌교여고 전교생은 한마음이 되어 챌린지에 나서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탄생시켰다는 전언이다.

KBS 2TV '홍김동전'은 홍진경, 김숙, 조세호, 주우재, 우영이 출연하며 동전으로 운명을 체인지하는 떠돌이 물의 구개념버라이어티로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20분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 먼데이키즈, 11일 신곡 '추억 일기' 발매

가수 먼데이키즈(이진성)가 겨울에 걸맞은 신곡으로 돌아온다.

먼데이키즈는 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ODRP의 뮤직드라마 프로젝트 신곡 '추억 일기'를 발매한다.

'추억 일기'는 한 남자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에게 잊지 못하는 감정을 절절히 표현한 곡으로 한 번 들어도 기억에 남는 진한 인트로부터 말하듯 전하는 후렴구, 포효하듯 가사에 와닿는 클라이맥스까지 먼데이키즈의 가창력을 통해 다양한 감정의 폭을 진정성 있게 다룬다.

빅마마, 엠씨더맥스, 김민석, 슈퍼주니어 등 수많은 아티스트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한 히트 메이커 프로듀싱팀 에이밍(AIMING)이 곡 작업을 맡아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전문 스트링 편곡팀 AimStrings이 스트링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참여하며 몰입도를 한층 더했다.

특히 "오래돼도 남아지지 않는 것

/ 반짝임이 사라지지 않는 것 / 어느 순간 슬픔마저 애뜻해지는 것 / 우린 그걸 추억이라고 해" 등 그리움, 간절함, 애뜻함을 넘나드는 가사와 먼데이키즈만의 섬세한 곡 해석력이 만나 리스너들의 마음을 물들일 전망이다.

또한 '추억 일기'는 음원 발매뿐만 아니라 뮤직드라마로도 제작되며 곡의 분위기를 한층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데이키즈는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가창력으로 오랜 시간 리스너들에게 사랑 받는 명품 보컬리스트다. 각종 컬래버 음원 및 OST 참여 이외에도 '너 아니면 안돼' '나의 숙제' '집에 돌아가는 길 외롭다' 등 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먼데이키즈가 가창한 ODRP의 뮤직드라마 프로젝트 신곡 '추억 일기'는 11일 오후 6시부터 감상할 수 있다.

황지원기자



## '커튼콜' 강하늘X하지원, "누나 괴롭히지 마쇼" 심땀 엔딩 탄생 비하인드 대공개! 웃참이 더 어려운 '퐁냥 커플'!

'커튼콜'이 웃음부터 긴장까지 다채로운 촬영 분위기가 담긴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박세연(하지원 분)이 가짜 동생 유재현(강하늘 분)의 정체 폭로 엔딩으로 화제를 모았던 KBS 2TV 월화드라마 '커튼콜'(연출 윤상호/극본 조성걸/제작 빅토리콘텐츠) 9,10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이 공개됐다.

9,10회 비하인드 영상에는 배우들이 캐릭터에 완벽 몰입돼 디테일한 감정 표현 연기를 선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공개된 강하늘과 하지원의 투샷은 복에서 온 사촌 동생 유재현이 무명의 연극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세연이 데면데면하게 구는 모습이다.

강하늘은 평소 잘 놀라는 하지원을 위해 살짝 다가갔으나 결국 대실패. 진지한 와중에도 숨길 수 없는 장꾸미까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배우 지승연과도 촬영 중간 중간마다 즉흥 애드리브로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특히 10회에서 화제를 모았던 손목 엔딩씬의 탄생 비하인드도 공개됐다. 유재현이 자금순의 손자 리문성을 개고자 박세연을 괴롭히는 기자에게 다가가 일침을 날린 뒤 박세연의 손목을 잡아 현장을 빠져나가는 엔딩 장면. 분방송만큼이나 박력 넘치는 유재현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 유재현의 돌발 행동에 박세연도 숨겨왔던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상황. 하지원은 화가 치밀어 오른 모습을 쏟아내다가도 강하늘을 눈만 쳐다봐도 웃음이 터지는 퐁냥 커플을 드러냈다.

또한 특별 출연으로 작품과 화면을 빛낸 배우들도 비하인드 영상에 포착됐다. 리문성의 아내 진숙 역을 맡은 배우 백진희는 본 촬영이 진행되기 전부터 캐릭터에 스며든 모습으로 윤상호 감독의 감탄을 자아냈다.

리허설 때 맞췄던 동작들까지 착착 선보이며 특별 출연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한 것. 배우 노상현도 리문성의 가슴 아픈 과거사를 보여주기 위해 평소보다 한층 더 진지해진 분위기로 캐릭터의 결을 살렸다.

촬영을 마친 백진희는 "감독님과 노상현 배우가 편하게 대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중요한 장면인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커튼콜'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호철 낙원 손자 리문성의 존재를 파헤치려는 해랑일보 열혈 기자 역으로 특별 출연한 김강현도 베테랑 배우답게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김강현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다. '커튼콜'에 잠깐 출연했지만 대본이 너무 탄탄하고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해달라"고 인사를 남겼다.

이처럼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화기애애한 호흡이 작품성으로도 빛나는 드라마 '커튼콜'은 매주 월화 밤 9시 50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 영탁,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 콘서트 출연 "글로벌 행보" 주목



가수 영탁이 인도네시아 팬들과 만난다.

영탁이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 콘서트에 출연한다. 본 공연은 오는 10일 현지시간 오후 2시 30분, 자카르타에 위치한 Istora Senayan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는 한국 가수가 인도네시아의 K-POP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 매년 개최하는 콘서트이다.

지난 공연 이후 약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크고 화려한 규모로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5천여 명의 관객들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국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외로 팬층을 확장시켜 온 영탁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오는 1월 미국 투어 역시 앞두고 있

다. '찐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신사답게'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은 영탁이 이번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인도네시아 팬들을 만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공연에는 영탁을 비롯하여 트래저, 자이언티, 준케이 등이 출연,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들로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무대를 꾸릴 예정이다. 영탁이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일 'K트롯'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 공연에 출연하는 영탁은 오는 1월 11일 애틀랜타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뉴욕, 19일 샌프란시스코, 22일 로스앤젤레스(LA) 등 미국의 4개 도시를 방문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재벌집 막내아들' 야망 드러낸 송중기 VS 순양家, 불꽃 튀는 승계 싸움 완성할 2막 관전 포인트

'재벌집 막내아들'이 예측 불가의 후반전을 연다.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연출 정대운·김상호, 극본 김태희·장은재, 제작 SLL·래몽래인·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진흥회)가 오늘(9일) 방송되는 9회를 기점으로 2막 돌입한다. 첫 방송 이후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독보적인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순양의 주인 자리를 둘러싼 승계 싸움 역시 달아올라 것이 예고됐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 순양을 위해 장자 승계 원칙을 없애고 모두를 싸움터에 밀어넣은 진양철(이성민 분), 이에 진도준과 진영기(윤제문 분), 진동기(조한철 분), 진화영(김신록 분) 삼남매가 완벽한 적으로 돌아선 지금, 이들이 펼칠 내일 없는 승부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이에 격변하는 후반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순양의 주인' 기회 얻은 송중기의 총력전 → 시한폭탄 전 이성민의 다음 행보는?! 순양의 방패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디지털미디어시티 프로젝트는 진도준의 묘수로 되살아났다. 대영그룹까지 끌어들이고 그의 대담함은 진양철을 분병 분노케 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즈음 뇌에 생긴 이상을 발견하며 내면에 큰 변화를 맞이했던 진양철은, 결국 진성준(김남희 분)의 결혼식에서 장자 승계 원칙을 거두겠다는

선언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얻었지만, 남매들 모두 이 이번 진도준을 염두에 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진화영을 시작으로, 진도준을 타깃 삼은 순양가의 맹공이 예고된 상황. 이를 뚫고 나갈 진도준의 총력전에 궁금증이 쏠린다.

또한 머릿속에 자리한 시한폭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양을 향한 욕망을 끌어안고 있는 진양철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궁금해진다. 위태로운 이들 가족이 만들 새로운 그림에 이목이 집중된다.

# '버려진 총신' 윤현우 X '증발된 막내아들' 진도준, 베일에 싸인 운명의 전말은?

순양가를 위해 일생동안 희생했음에도 처참히 버려졌던 윤현우(송중기 분). 그는 진도준으로 회귀한 뒤 자신을 죽인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진도준은 순양그룹 승계를 위한 비자금 비리에 어머니가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순양가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윤현우의 시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역시 관심을 모은다. 순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윤현우가 유일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4-2', 진도준은 2020년대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렇기에 더욱 격화될 싸움 속에서 진도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직 베일에 싸인 운명의 전말이 궁금해진다.

# '순양가 잡기 위한 동행' 예고한 송중기X신현빈, 또다른 관계성 시작될까 '순양의 저승사자' 서민영(신현빈 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진도준에게 있어, 뜻밖의 대학생 서민영은 흥미로운 상대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뒤 진도준은 더욱 복수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서민영 역시 감정을 확인하

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때문에 공개된 9회 예고편 속, 시간이 흘러 검사와 제보자로 재회한 이들의 모습은 궁금증을 한층 증폭시킨다.

이들은 스페셜 포스터에서도 '순양가'를 잡는 동행'을 예고, 새로운 관계성을 기대케 했던바, 진화영부터 시작해 순양의 내부를 부수기 시작한 이들이 어떤 공조를 펼칠지, 그 끝에서 각자의 목표인 '복수'와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9회는 오늘(9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최만식기자